



자연·놀이·아이 중심

생태친화-보육의 이해

교사교육용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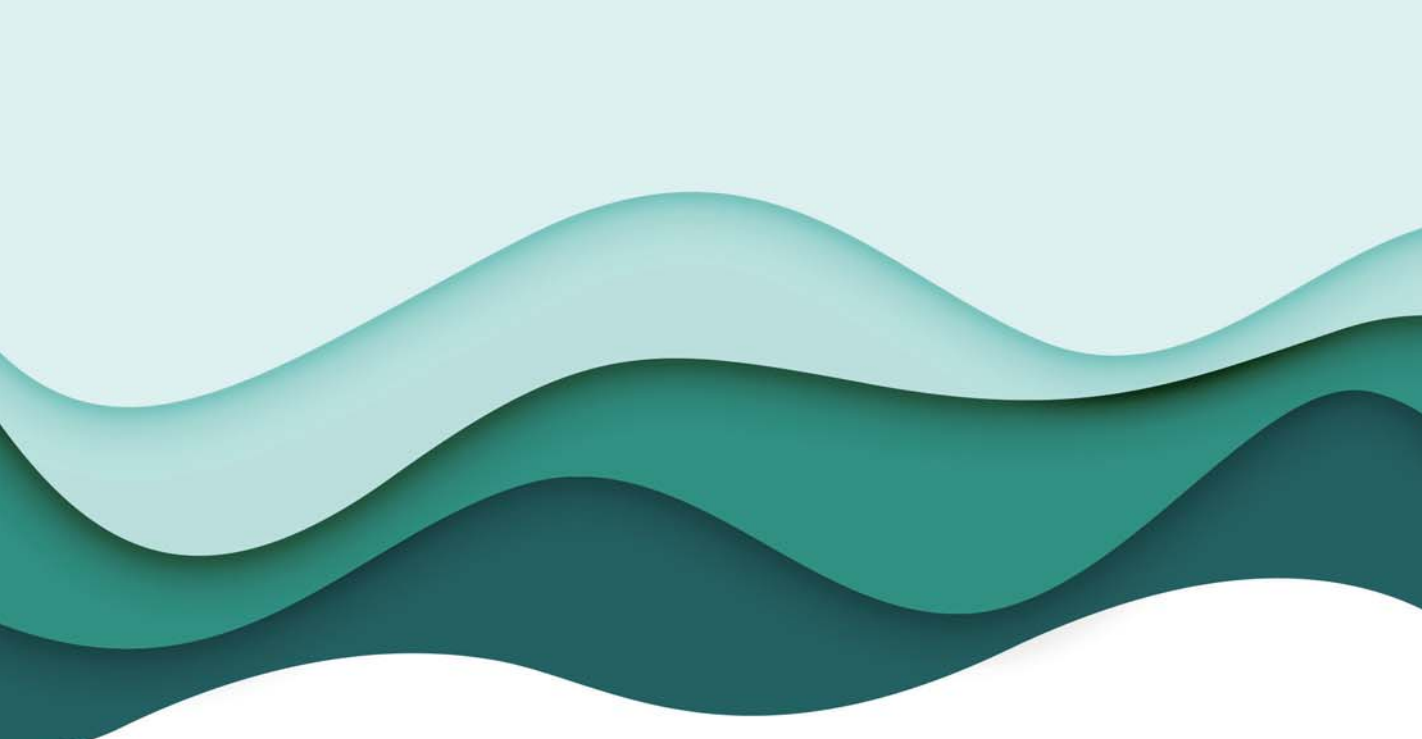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교사교육용 자료집)



자 연 · 놀 이 · 아 이 중 심 의 생 태 친 화 보 육 의 이 해

C O N T E N T S

제1강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1
1. 생태친화 보육의 개념	3
2. 생태친화 보육 운영의 기본방향	4
제2강 생태친화 보육의 기본운영원리	11
1. 생태친화 보육 운영원리의 배경	13
2. 시간운영의 원리	16
3. 공간운영의 원리	18
4. 사람관계의 원리	21
5. 나가며	23
제3강 놀이중심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25
1.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놀이의 의미의 변화	27
2. 생태친화 보육에서 추구하는 놀이의 모습	
- 신나게 놀이하는 아이	29
3. 놀이에 관한 오해들	32
4. 어떻게 놀게 할 것인가?	33
5. 놀이 속 교사의 역할	41
제4강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세시풍속	43
1. 절기와 세시로 풀어가는 생태친화 보육	45
2. 절기란?	45
3. 세시풍속, 왜 할까요?	46
4. 세시풍속,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46
5. 세시풍속, 어떻게 할까요?	47
6. 세시풍속, 누구와 할까요?	50
7. 세시풍속,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51
제5강 생태친화 보육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삶	59
1. 아이들의 건강한 삶, 왜 중요한가?	61
2. 아이들과 실천하는 건강한 삶	63
3. 건강한 삶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	78
참고문헌 	79
부록 2019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81



제1강 |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 1. 생태친화 보육의 개념



1) 생태친화 보육의 개념

생태친화 보육은 한마디로 ‘신나고 활기찬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교육이다. 신나고 활기찬 아이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다.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부지런히 마당을 뛰어다니며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이 어린이집의 좁은 교실에서 생기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바쁘다’,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지는 않은가? 생태친화 보육은 이 땅의 아이들을 자유롭게 천진난만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교육이다.

전통사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난과 굶주림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면, 현대사회는 과잉 교육과 반생태적 생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과거에 없던 아토피, 비염, 소아천식, 비만,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등 각종 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일 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것이 오늘날 아이들의 모습이다. 이처럼 소리 없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생태이다. 즉, 생태친화 보육은 아이들의 본래 아이의 모습 그대로, 신나고 활기찬 아이로 기르고자 하는 교육혁신이다.

신나고 활기찬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98년에 결의한 건강의 정의에서도 나타난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우선 몸이 건강해야 한다. 몸이 아픈 아이는 신나고 활기차할 수 없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한다.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 등 각종 인스턴트식품이 아니라, 건강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건강한 재료, 건강한 조리법, 건강한 방식으로 식사해야 한다. 건강한 재료란 농약과 화학비료가 없는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건강한 조리법이란 냉동이나 즉석조리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진 김치, 된장 등의 전통음식 위주로 먹는 것이다. 건강한 방식이란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안전한 식기로 식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밖에서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한다. 실내에서 공부만 하는 아이가 건강할 수 없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쬌며 물과 흙,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때 몸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 역시 건강해야 한다. 마음이 아프면 영혼(정신)도 흐려지고 몸도 차차 아프게 되어 있다. 마음은 억누름과 걸림이 없을 때, 자유롭고 편안하다. 닫힌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아이들은 자유롭고 활기찰 수 없다.

이처럼 생태친화 보육은 몸(배·체體) 마음(가슴·덕德) 영혼(머리·지知)이 건강하고 행복하여 신나고 활기찬 아이로 자라도록 하는 교육이다. 생태친화 보육은 아이들의 몸·마음·영혼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진정한 전인교육이다.

≡ 2. 생태친화 보육 운영의 기본방향



1)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의 개요

한국의 아이들은 전통적으로 가정과 마을에서 가족과 이웃 사람들과 자연의 품에서 자랐다. 가정교육이 교육의 중심이다. 아이들은 세시풍속과 절기행사를 통해 민속 문화를 익히고, 텃밭을 드나들면서 노동의 소중함과 농사를 익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가족 사랑과 노인공경을 익히고, 우리 고유의 놀이, 노래, 이야기, 몸짓 등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익히고, 김치담기, 메주 만들기, 된장담기를 보면서 우리의 먹을거리를 익히고, 수놓고 바느질하고 베 짜고 염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옷을 익히고, 목공과 대장간과 집짓기도 보았고, 자연물의 놀잇감이 최고이고, 흙장난·물장난·불장난이 가장 신나는 놀이라는 것도 알았다. 생태친화 보육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에 바탕을 둔 한국인의 오래된 미래의 보육과정이라 볼 수 있다.

2) 생태친화 보육 운영의 기본방향

생태친화 보육 운영의 기본 방향은 아이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의 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1) 시간·공간 운영의 방향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주로 바깥이나 자연에서 아이들이 신명나게 놀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곳의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없어 시간에 쫓기지 않는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서 놀고 난 다음 먹고, 먹고 난 다음 또 노는 생활리듬 속에서 일과를 보낸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물리적 시간이 아닌 아이들이 체험하는 시간에 무게를 두고, 아이들이 자신의 생체리듬에 따른 아이들 각자의 결대로 난대로 시간 운영이 되도록 한다. 생태친화 보육에서의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시간 운영은 정해진 시간표에 의한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시간 운영이 아니라 자연의 시간, 세시절기 행사의 시간, 아이 자신의 생리적 리듬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생태친화 보육의 일과운영은 일과 시간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아이들을 재촉하지 않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속도에 맞추어서 기관의 하루일과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체험 속에서 아이 스스로 시간의 흐름을 느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유아교육과정은 삶의 변화와 흐름에 따르는 장기적이며 순환적인 교육방법을 지향하고, 실제로 장기적이며 순환적인 시간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의 한정적 시간을 교사 임의로 계획하지 않고, 각 영역의 조직적 체계도 억지로 만들어가지 않는다.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 리듬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 한시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삶의 패턴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산책을 예로 살펴보면, 아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 흐름을 구분하고 분리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고, 이번 달과 다음 달이 연결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연결되고, 올해와 내년이 꼭 연결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환하는 하나의 고리로 계절의 시간과 삶을 인식해 나간다. 생태친화 보육의 요리활동 중 고추장이나 된장 등의 장 담기나 매실액기스 등의 요리활동에서도 시간의 장기적이며 순환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텃밭 가꾸기, 생태미술활동, 세시풍속을 통해서도 생명의 순환성을 따라 일회적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닌 한 달을 지나고 일 년을 지나 다음 해까지 연결되는 시간 운영의 방식이 나타난다.

한편 생태친화 보육에서 아이들의 생활 운영은 아이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놀이공간을 선택하거나 만들어 놀기도 하고, 안과 밖의 공간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는 하루를 보내며, 교실은 간식이나 식사를 하기 위해 또는 바깥놀이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들어서 쉬어가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삶의 모든 공간을 교육공간, 생활공간으로 바라보고, 기관의 실내 외 공간뿐 아니라 주변 환경 역시 중요하게 활용한다. 생태친화 보육의 주변 환경은 산, 들, 강, 바다 등의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햇볕, 바람, 물, 흙, 나무 등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소풍이나 체험학습이라는 하나의 행사로 자연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일상으로 자연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놀잇감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하루를 보내며, 자연과 자주 접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오감을 이용해서 자연과 만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고 있다. 아이들의 놀잇감은 인공물이 아닌 산책길에서 주운 흙, 돌, 나무열매, 나뭇잎, 나뭇가지 등 다양한 자연물과 이러한 자연물로 만든 놀잇감이나 미술작품 그리고 텃밭에서 수확한 옥수수, 감자, 고추, 호박 등 다양한 자연물이다.

(2)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생활하는 친구 같은 교사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의 계획이나 구분이 없고 통합되어 있으며, 매일의 일정이나 선택에 따라 일과 시간이나 공간 운영이 자유롭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노는 건강한 아이로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큰 소리로 떠들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과의 대부분을 교실 밖에서 산책이나 바깥놀이, 텃밭 가꾸기 등으로 자유롭게 보낸다.

또한 교사는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와 계절마다의 자연의 특징을 가장 잘 전해주는 명절과 절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시풍속잔치를 준비하고 이를 즐기는 일과를 보낸다. 또한 아이들에게 삶 속에서 먹을거리, 입을거리, 쓸거리, 놀잇감 등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익혀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곳의 교사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해 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아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된 교육내용에 따라 가르치고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주고, 돌보고 기르는 편안한 친구이자 엄마 같은 모습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생태친화 보육에서의 바람직한 교사상이다.

3) 생태친화 보육 운영을 통한 변화

생태친화 보육이 유아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학문적으로 정립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도 생태친화 보육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상당히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동안 생태친화 보육의 효과는 실증적 연구 부족으로 아직 미약하지만 아이들의 삶과 행동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반응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생태친화 보육을 통한 변화의 전반적 추세에 대해 아이, 교사 및 학부모 측면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아이들의 변화 모습

아이들의 진짜 놀이와 어른들의 가짜놀이

생태친화 보육에서 말하는 놀이는 아이들의 진짜 놀이다. 아이들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개구쟁이처럼 신나게 마음껏 놀 때, 그것을 놀이라고 한다. 신나는 놀이의 의미는 놀이의 주체인 아이들의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나 부모가 생각하는 신나는 놀이가 아니라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 즉 놀이에 몰입된 아이들의 모습에서 즐거움과 놀이의 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하면 신난다. 아이들은 신이 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창조적 지혜가 발동하며, 무한한 능력이 발휘된다. 아이들은 즐겁고 신나게 잘 놀면 잘 먹고 잘 자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고집과 억지도 줄어들고, 시야도 넓어진다. 반면 놀이에 몰입이 안 된 상태의 아이들은 놀이를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고, 정신이 분산되어 있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화가 나 있고, 사교력과 판단력, 집중력과 창의력이 저하된다.

아이들은 자신의 성장과 발달과 학습을 위해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바람 나게 놀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장과 발달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는 목표 지향적이거나 결과 지향적인 놀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가 즐기고 만족하는 생활 지향적이고 과정 지향적인 놀이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하면 신바람이 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맑아지면서 뇌파와 호르몬이 달라진다. 아이들의 뇌에서 기분 좋고 편안하게 하는 뇌파(알파파)가 나오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처럼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 뇌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으며, 마음속에 어떤 장애나 마찰도 없으니 머리는 밝고 맑고 시원해지고, 가슴은 편안하고 안정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직감과 영감이 발동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무한정 분출하여 상상력과 창조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력, 집중력과 기억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 신나고 활기찬 아이의 모습

신나고 활기찬 아이의 모습은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은 아이들의 모습이다. 신나고 활기찬 아이는 몸 마음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아이이다.

생태친화 보육 기관의 아이들은 생기(生氣)가 넘치고 즐거워하며 아이다운 모습을 보인다. 시멘트벽으로 둘러싸인 교실을 떠나 바람, 흙, 풀, 햇빛과 함께 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교실에서 인공적인 장난감을 갖고 놀 때와는 사뭇 다르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게 될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누고, 잘 잔다는 사실이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매일 산책을 한 아이들은 신체적인 균형 감각도 두드러지고, 몸도 튼튼하다. 그 외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남을 배려하고, 자연물에 대한 탐구력과 지구력이 생긴다. 생명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생긴 것도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교사들의 변화 모습

대체로 교사들은 처음에는 생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동안 교사들은 연간, 주간, 일일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교재 교구를 준비해서 좋은 수업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며, 매 활동마다 뭔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이러한 유아교사들의 의식이 생태적 의식으로 바뀌는 데는 많은 노력과 어느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교사 세미나, 관련 서적 읽고 토론하기 등은 물론 국내·외 생태교육 현장 체험도 노력의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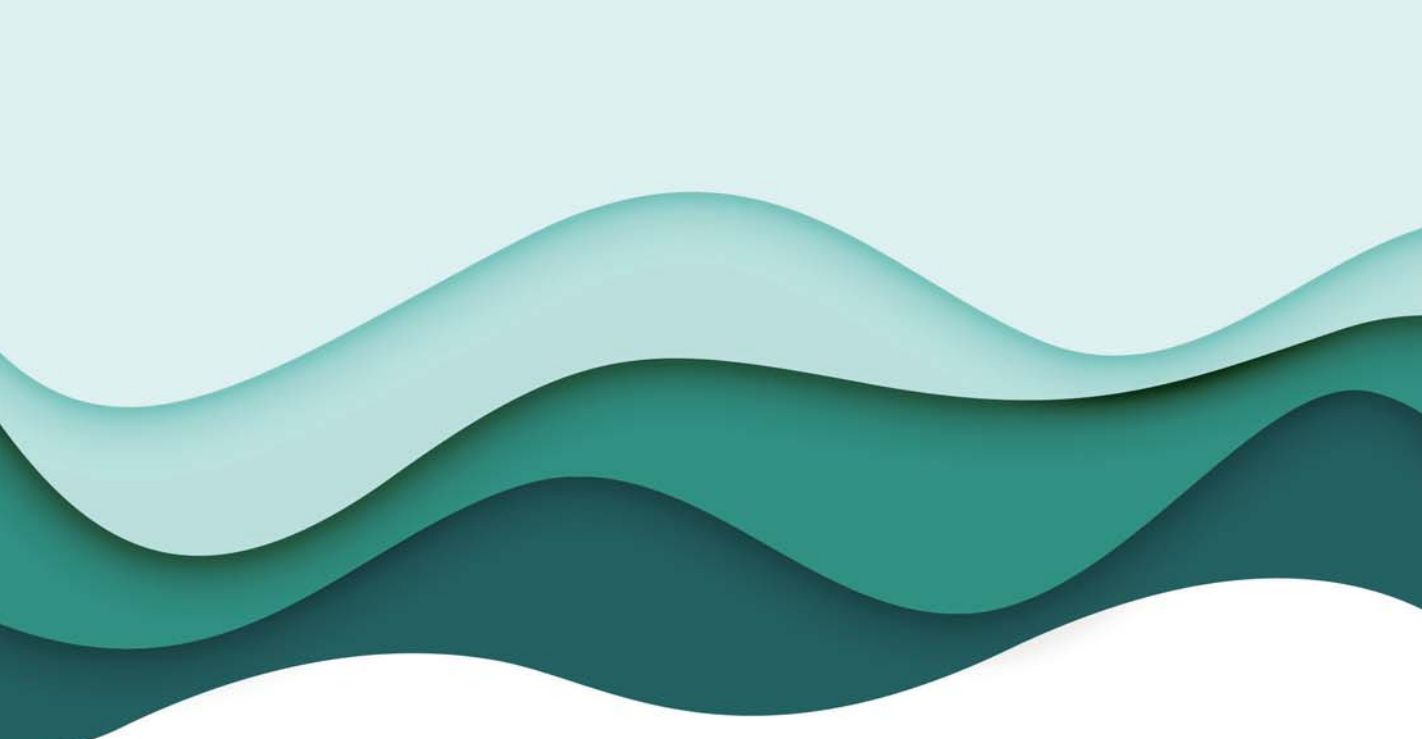
한편 교사들은 여러 가지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사들은 생태친화 보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과 더불어 자신도 신나고 활기찬 교사가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3) 부모들의 변화 모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글자·숫자·영어공부 등 학습적인 면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생태친화 보육을 통하여 산책을 가거나 텃밭에서 작물 재배를 단순히 놀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 기관에서는 산책, 텃밭 가꾸기 등 생태친화 보육 관련 통신문 발송과 강연회 개최, 학부모 모임, 소식지, 학급신문, 부모참여활동 등의 노력을 한다.

그 결과, 부모들의 의식은 점차 변해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산책을 주제로 한

부모 참여 활동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체력과 순발력, 활동성, 인내력, 또래들에 대한 배려,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력과 친화력, 위기 대처 능력 등에서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보고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들의 사고와 행동은 물론 가정에서의 삶도 생태적으로 변해가게 된다. 특히, 아토피 등 신체질환이 있는 아이들 부모 경우에는 먹을거리는 물론 가정생활 전반이 생태적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제2강 | 생태친화 보육의 기본운영원리

- 시간, 공간, 사람관계를 중심으로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이 장에서는 생태친화 보육이 지향하는 기본운영원리를 시간의 운영, 공간의 운영, 사람 관계의 운영, 세 가지 운영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생태친화 보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높이고자 한다. 위 세 가지 운영원리에 대한 설명에 앞서 생태친화 보육의 운영원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 1. 생태친화 보육 운영원리의 배경



1) 분리의 보육에서 통합의 보육으로

근대 이후 사회가 지니는 큰 특징 중 하나는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보육은 영유아기부터 이러한 분리하고 나누는 방식이 적용되기 시작된다. 부모와 아이의 분리, 우리반과 옆반의 공간 분리, 교실 안과 밖의 분리, 어린이집 안과 밖의 분리, 교실 안에서 영역별 분리, 하루일과에서 시간의 분리 등의 쪼개고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어떤 사물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쪼개고 쪼개어 그 본질을 찾아낸다는 것이고, 동양에서 어떤 사물을 안다는 것은 그 사물과 다른 사물 간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안다는 것이다. 서양의 교육이 한국사회에 일반화되면서 분리의 교육문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연령별로 학년을 구분하고, 교과목을 나누어 전문화시키고, 시간을 쪼개어 시간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을 세분화 전문화시키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편에서는 교육이 기능화되고 통합된 인식의 결여를 낳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융합교육, 통섭교육, 통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목간의 교류와 연결이 강조되고, 40분 수업과 10분 쉬는 시간의 공식이 융통성있게 조절되기도 한다.

이제 보육의 측면을 둘러보자. 시간을 세분화시켜 하루일과를 촘촘하게 쪼개고, 공간을 분리시켜 활동을 제한시키고, 사람을 분리시켜 같은 연령과만 교류하도록 하는 보육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앞서 설명한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는 서양의 사유방식이 보육에 적용된 것일 수 있다.

2) 경쟁의 방식에서 더불어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경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자연 법칙에 의하여 움직인



다’는 생물학적 근거에 기초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연은 정말 약육강식에 의하여 움직이는가?’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오랜 시간 야생을 관찰한 전문가들이 지켜본 자연은 경쟁과 승자 독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대신 야생 동물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따뜻한 감동 스토리를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소개하기도 한다. 즉, 승자도 패자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조화와 공존’의 세계가 자연이라는 것이다(최삼규, 2016).

현대사회에서는 정치나 경제뿐 아니라, 보육에서도 ‘경쟁’은 손쉬운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쉽게 통제할 수 있다. 형제끼리 친구끼리 옆집아이끼리 끊임 없이 비교당하며 어린시기부터 경쟁이라는 생존방식을 몸과 마음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보육현장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교와 경쟁과 줄세우기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수없이 많다. “누가 누가 잘하는지 볼까요?” “00가 제일 빨리 했구나.” 이 때 교사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속도가 느린 (혹은 자기만의 창의성에 빠진) 아이들에게 교사의 의도대로 재빠르게 따라하지 못함으로 인한 열등감을, 그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우월심을 심어준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잘해야 해’라는 생각을 심어준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옆 반은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는데 우리반은 잘하지요”라고 말하며 집단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비교와 경쟁의 교육방식은 아이들을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을 짓누르고 왜곡시킨다. 그렇다면 경쟁이 아닌 다른 교육방법이 있을까?

현대사회에 이르러 학교 교육에서 문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따돌림이다. 따돌림은 경쟁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된 마음에서 생기고, 그 본질은 두려움이다. 우리반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온다는 것은 경쟁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놀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더 생기는 것일 수도 있다. 현대의 대부분의 놀이들은 전자를 강화시키는 것들이다. 제한된 놀이감과 공간,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비하여 대부분의 실외놀이나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전래놀이들은 인원이 많아지면 더 재미나는 놀이가 된다. 강강수월래, 숨바꼭질, 사방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축구, 잡기놀이, 흙놀이, 집짓기놀이 등이 그러하다.

3) 통치자에서 자기성찰로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능력과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아이들에게는 아름

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잘 달릴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머리가 있고, 좋고 싫음을 느끼는 가슴이 있다. 아이들이 가진 이러한 능력을 믿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합의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 만들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때, 교사는 통치자가 된다. 교사가 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싸움을 판별하는 통치자, 사소한 아이들의 행위와 말을 규격화하는 통치자가 될 때, 아이들은 자연의 결대로 자라기 어렵다.

교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은 통치자의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찰의 능력이다. 성찰은 자기이해 능력과 관련 있다.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교사가 가지는 마음 한 조각이 어떤 의미이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태친화 보육은 교사가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성찰하기와 더불어 ‘함께 성찰하기’가 필요하다. 교사들끼리의 성찰(일상적 소통, 업무 회의, 공동체 교육참가, 집단상담 등), 아이들을 통한 성찰(아이들 관찰하기, 마음 들여다보기, 아이들로부터 배우기 등)이 있을 수 있다. 함께 성찰했을 때 그 변화가 크다.

4) 창조하는 프로그램, 창조하는 삶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바깥놀이, 산책, 텃밭, 세시풍속, 어르신 - 아동, 먹을거리, 손 끝놀이, 몸짓놀이, 생태미술, 도시농촌교류)은 하나의 본보기일 뿐 고정된 것이 아니다. 각 현장의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만들어가면 그것이 진정한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이다. 다만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 앞서 지적한 ‘믿음과 소통, 성찰’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즐겁고 교사도 즐겁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그저 따라하지 않고 되돌아보아 성찰하고 우리에게 맞게 창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을 믿고 그들의 호기심과 관심, 바램과 의지를 살펴서 그것에서 출발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 속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외부 것을 따라하기만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도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유행이 올 때 그 유행을 따라 다시 따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이라는 추상을 실재화한 것이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일정한 틀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그 사상의 일부분이다. 프로그램의 이면에는 글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내용과 변화가



숨겨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승패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 그 자체보다 프로그램의 이면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이면을 결정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유아와 교사이고, 특히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주도해 나가는 교사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결국, 프로그램의 성패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깊이, 내용을 결정하는 교사의 의지와 가치관에 달려있다. 생태친화 보육은 머리로 듣고 입으로 유아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여 손과 발로 실천하는 교육이다. 생태친화 보육은 그 내용을 몸, 마음, 영혼으로 받아들여 교사인 내가 행하고 깨닫해지는 과정이다. 즉, 생태친화 보육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생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2. 시간운영의 원리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시간 운영은 하루일과표, 주간계획, 월간계획, 연간계획 등 미리 짜여진 계획에 의해 운영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의미있게 보내는 시간을 통하여 의미있는 것들을 가르치고자 하고, 그래야 의미있고 성실한 교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계획은 가능한 빈구석 없이 촘촘하게 짜게 되기 십상이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즉 교사가 계획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는지 혹은 아이들의 자율적인 흐름에 따라 계획이 변경 가능한지에 따라 시간운영은 달라진다. 또한 매주 매달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보육내용을 쌓아가는 시간운영인지, 1년을 주기로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보육내용을 정하는 흐름 인지애 따라 보육은 달라진다. 시간을 촘촘하게 나누고 계획된 일정을 잘 따르고 완수하는 것에 보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혹은 느슨한 시간 흐름에 따라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변경 가능한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아이들의 삶과 보육은 다른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생태친화 보육의 시간운영은 첫째, 일정한 규칙과 리듬을 가지되 느슨하고 여유있게 운영한다. 시간을 고정된 물리적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경험하는 체험의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김은주 외, 2017). 즉,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과를 마쳐서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욕구와 속도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특성이나 자연의 흐름에 맞게 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두 가지 기관의 하루일과 예시에 나오듯,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가능한 하루일과를 촘촘하게 세분화하지

않고, 여지를 두고 큰 테두리를 정하는 선에서 계획한다. 일반적인 보육기관의 시간운영은 아이들을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하여 교육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교사와 스스로의 흐름에 충실하고 싶은 아이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김은주 외, 2017).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 교사에게 시간표에 맞추어야 한다는 긴장이 줄어들고 아이들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둘째, 자유놀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Suransky(1994)는 자유가 없는 아동은 다른 사람의 세계와 존재론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찾는 탐색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타인의 존재를 찾는 일의 진가를 인정하고 타인의 세계를 탐색하게 된다.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대집단활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과 타인을 하나의 틀 속에서 생각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충분히 탐색하는 경험이 있어야 집단 곳에 자신을 위치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제도와 틀에 맞추어 행동하게 될 때, 아이가 지니는 고유한 의미의 생명성은 박탈당하게 된다(조순영, 1998). 일과를 세분화하지 않으면 자유놀이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고 그만큼 아이들은 자신의 세계를 탐색하는 경험의 시간이 늘어나고 아이들 개별의 생명성은 존중된다.

■ 생태친화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예시(유아)

시간	활동 내용
07:30~10:00	등원 및 자유놀이, 오전간식
10:00~12:00	산책이나 텃밭 등의 주요 활동
12:00~13:00	점심식사 및 이 닦기
13:00~13:30	자유놀이 및 낮잠준비 (몸짓놀이, 책언니·형 등)
13:30~15:00	낮잠 및 휴식
15:00~16:00	정리, 오후간식
16:00~19:30	바깥놀이 등의 자유놀이, 귀가

■ 현재 누리과정 일과 예시(유아반) ¹⁾

시간	주요 일과
07:30~09:00	등원 및 통합보육
09:00~10:30	오전자유선택활동/오전간식
10:30~10:50	정리정돈 및 화장실가기
10:50~11:20	대·소집단 활동
11:20~12:20	실외활동
12:20~13:20	점심식사 및 이 닦기
13:20~14:00	조용한 활동, 정리정돈 및 낮잠 준비
14:00~15:30	낮잠 및 휴식
15:30~16:00	낮잠 깨기 및 정리정돈
16:00~16:30	오후간식
16:30~18:00	오후 자유선택활동
18:00~19:30	귀가 및 통합보육

1)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8))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셋째, 장기적이고 순환적인 시간운영이다. 일반적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시간운영 방법은 단기적이며 횡적 방법이다. 한 주제를 선택하여 1~2주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그 주제가 끝나면 또 다른 주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1년을 거쳐 여러 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실행하여 운영하고 있다(김은주 외, 2017). 이러한 시간운영방식은 주제에 따라 구획되고 분할되는 특징과 단기적인 특성을 가진다(임재택, 2008). 이에 비해 생태친화 보육의 시간운영은 1년을 거쳐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시절기 프로그램은 1년을 하나의 주기로 반복되고, 텃밭활동도 이와 유사하다. 산책 나가서 만나게 되는 나무나 꽃 등 식물의 성장과정이 그러하다. 요리활동 중에 된장이나 고추장 담기 등의 활동도 단기가 아닌 장기적이고 순환적인 활동의 예라고 볼 수 있다.

≡ 3. 공간운영의 원리



생태친화 보육에서 공간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자연친화적 공간이고, 생명의 원리에 따라 아이들의 일상이 있는 생활공간이다(임재택, 2008). 생태친화 보육에서 보육은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배우고 쉬는 일상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생태친화 보육의 공간은 생활공간이고 삶의 공간이다.

생활공간으로서 우리 전통의 가정집은 자연만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으로서, 구성원인 가족들뿐 아니라, 가축과 곡식 및 채소, 땅과 물과 공기가 살아 있고, 이들은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하였다. 집을 지을 때는 자연의 재료인 흙, 돌, 나무 등을 이용하였고, 이것들은 수명이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생태친화 보육의 공간은 원색을 이용하여 자극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기보다는, 가능한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자연을 닮아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고 소박하며 주위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기관의 가구와 바닥재, 교재 교구나 비품들도 가능한 자연재료로 만들거나 자연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임재택, 2008).

실내공간의 구성 및 활용을 살펴보면, 첫째 실내공간은 가능한 통합된 공간으로 구성한다. 공간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보면 닫힌 구조나 쪼개고 나누는 구조보다, 열리고 통합된 구조가 좋다. 예를 들어, 실내의 교실과 실외 바깥놀이 공간이 가능한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다. 더불어 실내 교실에 머물더라도 바깥의 경치가 보이고 공기, 바람, 햇살이 드나들 수 있도록 자연채광과 자연통풍이 잘 되는 구조이면 좋다. 그래서 창문에 과도

한 켄팅을 하여 바깥과 실내를 차단하는 것은 자연과의 연계를 차단한다. 교실은 교구장으로 실내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구장을 벽으로 붙이고 교실의 가운데를 넓게 두어 아이들이 놀이 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생태친화 보육의 공간통합은 한 반의 한 교실에서 운영뿐 아니라, 옆반의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자유놀이 시간동안은 각 반의 공간을 통합하고 개방하여 사용가능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람관계의 통합을 가져온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같은 연령의 다른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연령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다.



■ 실내에서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연결된 어린이집 구조



■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차양막이 있어 비오는 날에도 밖을 보며 실내활동이 가능하다.

둘째, 교사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구성한 실내공간이나 벽면구성이 아닌, 아이들의 작품으로 벽면을 구성하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가꾸고 활용하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생태친화어린이집에는 아이들에 의해 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공간이 있다. 우산집, 작은 텐트, 천으로 지어진 집, 블록으로 만드는 공간 등이 그것이다.



■ 교구장을 벽으로 붙이고 교실의 가운데를 넓게 사용하는 어린이집 실내구조

셋째, 실내공간은 인공적인 소재보다는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가정집의 방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구성한다. 또한 교재교구는 상품화되어 있는 제품이나 플라스틱 소재를 지양하고, 영역별 구성을 위해 구비해 놓았으나 아이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교재교구는 과감하게 치우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교재교구도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대신 천이나 털실, 나뭇가지, 돌, 조개껍질 등 산책 나가 가져온 자연물을 이용하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이나 재활용품 등을 활용한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또 다른 공간은 어린이집의 밖 공간, 즉 어린이집의 주변 동네이다. 생태친화어린이집의 주변은 아이들이 주로 산책을 가는 장소로 몇 곳이 정해져 있고, 그곳은 공룡놀이터, 무지개다리, 할딱고개 등 아이들이 지어준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불리며 아이들에게 의해 새로이 태어난다.

≡ 4. 사람관계의 원리



생태친화 보육은 아이들의 생명성을 살리는 교육이다. 생명성은 모든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성질을 지닌 에너지이면서, 동시에 한 생명은 다른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명성은 개별성과 연결성이라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생태친화 보육은 유아들 각자가 내면에 지니는 이러한 생명성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은 곧 신나고 활기찬 아이로 기르는 것이다.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사는 것이 곧 그들의 생명성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개개인의 생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별 생명은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의 두 번째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나라는 존재는 여러 차원을 가진 세계의 연합을 통하여 가능하다. 나라는 존재는 나 이전의 역사와 문화의 반영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수없이 많은 다른 존재들과의 긴밀한 연결 속에서 가능하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아이의 발달수준에 맞는 적합한 가르침에 주목하기보다, 아이가 맺게 되는 관계에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생명성이 지니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만약 아이들의 생명성을 한 학급 안의 다른 아이와의 관계, 담임교사와의 관계로 아이의 관계를 한정한다면 그들의 생명성은 제한할 수밖에 없다.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관계를 확대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생태친화 보육은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 보육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공동체, 개인과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공동체, 사람과 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공동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명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생태친화 보육의 방향이다(임재택, 2008).

1) 연령간의 통합

현재 대부분의 보육기관은 연령별 반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삶에서는 연령별로 관계를 구분짓기는 어렵다. 전통사회에서 한 가정 안에 여러 형제자매가 어울려



성장하였듯이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연령의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연령 간 통합은 산업화 도시화되어 가면서 핵가족 혹은 외동아들이 늘 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연령 통합으로 진행되는 혼합연령 학급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놀이 시간에 다른 반을 드나들며 놀이를 하거나 요리활동이나 텃밭, 산책활동을 하면서 형이나 동생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생태친화어린이집에서는 언니, 형들이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식사도우미를 하기도 하고, 낮잠자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2) 가정이나 동네이웃과의 관계맺음

사람관계의 통합은 아이들끼리의 통합만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가정의 통합, 어린이집과 동네이웃의 통합으로 나아간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가정이 어린이집의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동반자, 조력자로 활동한다. 부모들은 등하원시 교실 안으로 들어와 교사와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의 사물함을 정리하기도 한다. 아빠가 휴가를 내어 한 학기 혹은 일 년에 1회 이상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함께 하기도 하고, 세시잔치나 요리활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사의 역할을 분담하여 하기도 한다. 그 외 청소나 장 담그기, 텃밭 가꾸기에도 참여하고, 체육대회나 음악회 등에 함께 하기도 한다.

또한 동네도 산책을 나가며 이웃주민과 인사 나누며 자주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근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웃주민을 세시잔치에 초대하여 어린이집의 생활을 나누며 더욱 가깝고 친숙해지기도 한다. 마을의 텃밭을 가꾸는 주민이나 산책길의 작은 슈퍼나 은행, 경찰서 등은 자주 접하는 곳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발전한다.

5. 나가며



앞서 살펴본 생태친화 보육의 운영원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산책프로그램, 텃밭프로그램, 바깥놀이프로그램, 세시풍속프로그램, 손끝프로그램, 먹을거리프로그램, 몸짓프로그램, 생태미술프로그램, 도시농촌교류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론에서 먼저 나왔다가보다, 실천하는 모습을 프로그램화하니 이론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보육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생태친화 보육이 지니는 큰 장점일 수 있지만, 동시에 현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기존 대부분의 보육프로그램은 어떠한 교사가 그 프로그램을 실천하더라도 기본적인 형태의 그림을 그려내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도달하여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생태친화 보육은 오히려 이와 반대를 지향한다. 어떤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교조적으로 찍어내는 형태로 생산될 수 없다. 프로그램은 하나의 본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생태친화 보육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곧 생태친화 보육의 실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사,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는 아이들, 그 셋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생태친화 보육의 의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본보기(현존하는 여러 생태보육프로그램)를 보고 이를 각자의 현실에 맞게 각자가 지닌 생각과 가치의 수준에 맞게,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담아낼 수 없는 이면을 창출해 내는 것이 생태친화 보육이다. 어린이집의 주변 환경, 원아수, 교사의 수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존중되고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함께 소통되고 변화될 수 있는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생태친화 보육의 승패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천하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사람의 생각, 가치에 따라 다른 이면이 만들어지고 그 이면의 내용이 결국 생태친화 보육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산책을 1시간 넣고, 금요일에 텃밭활동을 1시간 넣고 생태친화 보육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갈림길은 생태친화 보육을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느냐는 의도,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과정에 달려 있다. 즉, 아이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고민 속에서 생태친화 보육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이른바 ‘생태’를 기존의 교육에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의 문제이다. 하루 일과의 매시간대에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프로그램이 있고 그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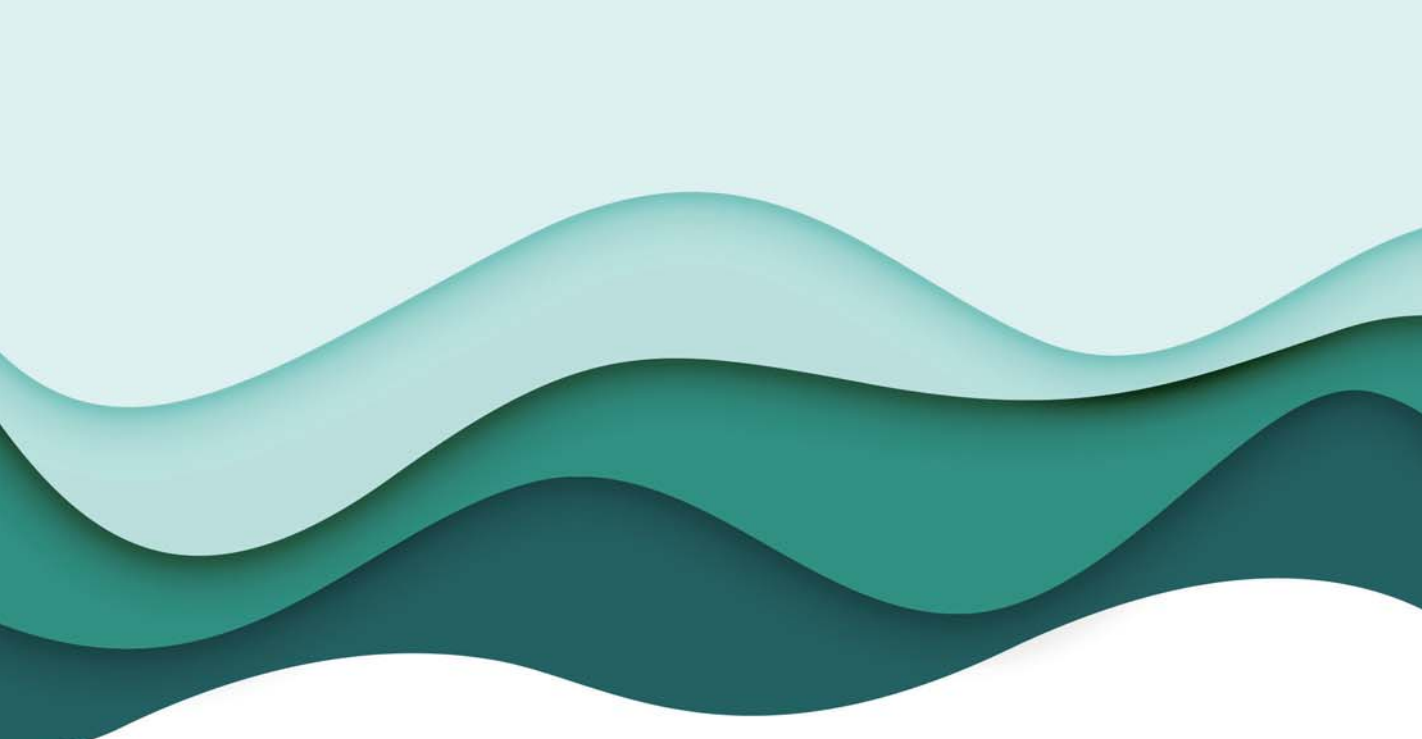


산책이나 텃밭활동 등의 생태 프로그램 한 두가지 끼어 넣고 생태친화 보육을 하는 곳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생태친화 보육의 이 두 가지 다른 양상은 산책을 나가고 텃밭을 가꾼다는 외형적인 공통 점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낸다. 산책을 나간다고하더라도 아이들이 주변의 나뭇잎이나 벌레를 구경할 틈도 없이 성인의 지시에 의해 앞을 쳐다보고 줄을 지어 빠르게 걸으며 원의 주변을 한바퀴 돌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원의 현관 근처를 벗어나지 못했다하더라도 그 주변의 흙을 만져보고 벌레도 구경하며 아이들이 자연을 자유롭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양상 중 어떤 모습이 생태친화 보육에 가까운지는 자명하다. 생태친화 보육은 궁극적으로 삶과 활동으로 풀어지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산책을 나간다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생태친화 보육을 설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며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활동이 얼마나 생태적이나 아니냐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단지 원 주변을 줄지어 한바퀴 도는 행위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논외로 한다.)

또 다른 예로, 일일교육계획안의 산책 프로그램에서 ‘가을의 낙엽’라는 주제를 가지고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고 하자. 프로그램에 계획되어 있는 대로 다양한 색깔의 낙엽을 모으고 그것으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외형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실천 내용과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산책을 나갔지만 아이들은 낙엽에 관심이 없고 비 온 뒤라 지렁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사는 혼자서 열심히 낙엽을 모은 뒤, 지렁이를 구경하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 앉히고 다양한 낙엽의 색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는 단지 산책이라는 외형만을 취하고 기존의 지식중심 교사중심의 교육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친화 보육은 물질과 돈이 아닌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던 육아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고, 밀폐된 실내가 아닌 대자연과 동네 마을에서 키우던 육아의 공간을 회복하고자 하고, 플라스틱 교구와 TV가 아닌 나무토막과 털실로 키우던 소박한 놀이감을 회복하고자 하고,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아닌 김치와 된장으로 키우던 옛 먹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보육이다.



제3강 | 놀이중심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 1.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놀이의 의미의 변화



현장의 교사들에게 “놀이”만큼 익숙한 용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사주도의 활동이나 “수업”을 보육과정에서 “놀이”라고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즉, 교사가 특정 주제에 따라 계획하고 설계한 활동이 “○○놀이”란 이름으로 계획안의 자유선택활동 혹은 대·소집단활동에 기술되었다. 그리하여 현장에서는 “놀이한다”라는 말 대신 “자유선택활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다음의 페이지에 소개된 <거울놀이> 역시 기존의 누리과정에서 중시해 왔던 “놀이” 혹은 “놀이중심보육”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정한 목표(누리과정 관련 요소)의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대로 아이들의 행동의 내용과 순서를 설계하고, 질문과 지시대로 아이들의 행동을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놀이>라고 불러 왔다.

2007년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된 이래, 현행 3~5세 누리과정까지 어린이집에서 놀이를 강조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2019년 시작되고 있는 “놀이중심” 보육과정으로의 변화는 두 가지 면에서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자연, 놀이, 아이다움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생태친화 보육을 하고자 하는 현장의 원장과 교사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된다.

1) 수업이 아니라 놀이가 하루일과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누리과정에 따라 계획된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는 실내자유선택활동, 이야기나누기, 대소집단활동, 점심시간, 낮잠, 바깥놀이를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부터 바깥놀이를 가고 싶어도 “실내자유선택”과 주제에 맞춘 “이야기 나누기”를 형식적으로 하고, 주제를 반영한 대소집단 활동을 하려다 보니, 바깥놀이 시간이 줄어들기 일쑤였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 전의 하루일과의 중심은 <대소집단활동> 즉, <수업>에 있었다. 그러나, 2019년 개정 누리과정과 개정된 평가제에서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고 들어와도 보육과정의 계획과 평가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일과가 되었다.



활동15 거울놀이

- 유 형: 대소집단활동
- 영 역: 신체
- 목 표
 - 신체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해 본다.
 - 거울의 원리를 알고 즐겁게 놀이한다.
 -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신체로 표현해 본다.
- 5세 누리과정 관련 요소
 - 신체운동 건강: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 신체조절하기
 -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활동 방법

1) 거울을 탐색하며, 거울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 누가 나와서 만져보고,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겠니?
- ~~한 느낌이 드는 물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 (비밀주머니 속의 거울을 꺼내며) 무엇이었니?
-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왔니?
-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거울을 보니?
- 차례대로 거울을 돌려보며 내 얼굴을 비추어 보자.
-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과 똑같니?

2) 거울놀이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번에는 선생님이 거울이 되어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 볼게.
- 누가 나와서 거울을 보며 재미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지어 보겠니?
(유아가 움직이면 교사는 유아의 움직임을 거울이 되어 따라 움직여 본다)
- 이번에는 너희들이 거울이 되고, 선생님은 거울을 보는 사람이 되어 볼까?
(교사는 다양한 표현을 하면, 유아가 교사를 따라 신체표현을 하도록 한다)

〈예시〉

- 표정·선생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얼굴의 어떤 부분을 움직이고 있니?
- 앉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앉아서 어떤 부분을 움직일 수 있을까?
- 일어서서 움직이기; 비 이동 또는 이동 동작 등 다양하게 표현한다.
 - 선생님이 오른쪽 손을 들었네. 너희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 선생님이 콩콩 뛰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나와 유치원 (pp. 162-163) 일부 발췌

2) 흥미영역과 생활주제에 의해 규정되는 놀이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누리과정에서 놀이는 <자유선택활동>과 <흥미영역>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즉, 자유선택활동은 다른 대소집단활동과 마찬가지로 그 달의 <생활주제>, 그 주의 <주제>, 그 날의 <소주제>와의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그것이 <주제중심통합과정>의 핵심이었다. 그리하여 교사들은 매달 교재나 교구, 그림책들을 <주제>에 맞게 그리고 4-8개의 흥미영역에 맞춰 내용을 교체해 주어야 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정해진 <주제>와 <흥미영역>과 관련시켜 아이들의 놀이를 계획하고 일지를 기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누리과정 및 평가제에서는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 자유선택활동이 아닌 자유놀이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흥미영역이나 주제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으며, 흥미영역 중심의 실내 자유놀이가 아닌 산책과 같은 바깥놀이도 동일하게 “자유놀이”로 인정받게 되었다.

≡ 2. 생태친화 보육에서 추구하는 놀이의 모습 - 신나게 놀이하는 아이

아이들은 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놀이는 아이들의 생활이고 일이다. 아이들의 놀이는 성장과 발달, 창조와 진화의 원천이다. 아이들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개구쟁이처럼 신나게 놀아야 한다(임재택, 2019).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연”, “아이다움”, 그리고 “놀이”를 강조해왔다. 여기서는 생태친화 보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놀이”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놀이의 의미는 놀이의 주체인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찾아야 한다. 교수나 교사가 놀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놀이가 아니라,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 즉 놀이에 몰입된 아이들의 모습에서 놀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임재택, 2019).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놀이”의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 유명한 학자나 사상가의 개념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린 시절의 놀이를 떠올려 보기를 권한다.



Q. 내가 어린 시절 제일 좋아했던 놀이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재미있었나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놀이

이 놀이의 어떤 점이 나에게 재미있었나요?

어린 시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의 무한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 몰입했던 그 놀이, 그 시절의 그 어린 아이의 눈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자.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지, 어디가 발달할 지를 아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놀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 놀이에 담긴 발달적 학습적 효과를 아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태친화 보육에서 추구하는 놀이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놀이는 아이를 가장 아이답게 한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하며 창조적 지혜가 발동되며, 무한한 능력이 발휘된다.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하면 즐겁고 신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아집과 편견도 사라지고 시야도 넓어진다. 반면, 누가 시켜서 놀이를 하면 의무감에 억지로 하게 된다. 놀이에 몰입이 안 되어 정신이 분산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화가 난다(임재택, 2019).

생태친화 보육에서 놀이를 강조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바깥놀이, 숲에서의 놀이를 강조하는 이유도 가장 아이다운 모습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나고 활기찬 아이”의 모습은 밖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생태친화 보육이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자연과 놀이, 아이다움”이 통합된 모습이다.

아이들이 놀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잘 노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리듬으로 성장하고 발달을 하는 것이다.

2)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경험의 주인이 된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추구하는 놀이의 또 다른 특징은 놀이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경험의 주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교사주도의 수업을 가장한 놀이를 경계하고 있다.

아이가 경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까 결정하면서 맥락을 만들어간다. 상황을 만들어가고 전개해가는 힘은 놀이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스스로 놀아 본 경험이 적은 아이는 생활의 주체로서 상황을 만들거나, 판단하고 맥락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기를 수 없다. 교사에 의해 활동의 전개방식이나 방향이 이미 정해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활동”은 아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의 주인이 되었다고 느끼지 못한다.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전개시켜 나가는 힘을 얻기 어렵다.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 재미있을 때 몰입하며 그 때의 그 경험은 진짜 자기 경험이 된다.

3) 놀이 속에서 아이는 세상과 관계 맺고 배우고 경험한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그 결과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놀잇감과 다양한 소재들과 상황들을 경험하며 행복해하고 갈등하기도 하며, 무수한 맥락과 상황들, 감성과 감정들을 경험한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만나는 무수한 관계들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한다고 해도 결코 실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놀이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정하며, 의욕적이 되고 스스로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4) 놀이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추구하는 놀이는 실외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 이뤄진다. 바깥놀이, 산책, 텃밭 가꾸기, 세시잔치 등은 실내보다 바깥에서 이뤄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아이는 실내놀이보다 실외놀이를 좋아하며, 자연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놀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햇볕과 바람, 하늘, 흙모래, 동식물들,



날씨의 변화, 다양한 색깔, 탁 트인 공간 등은 실내공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잠재적 경험의 기화가 되기 때문이다.

≡ 3. 놀이에 관한 오해들



1) “놀이”와 방임은 다르다.

아이들의 놀이를 중시한다는 것, 아이들이 놀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놀이는 방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면 아이가 자신의 책임하에 놀이하도록 해야 한다. 위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도록 해야 하고, 아직 그런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환경은 미리 제거되어야 한다.

성인과 교사는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놀이 속의 원칙과 규칙을 가르쳐야 한다. 놀이 후의 정리정돈, 타인을 위한 배려, 자연을 위한 보살핌, 연령별 아이들의 수준에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놀이는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과 배움을 안겨준다. 그러나 아이들 수준에서 스스로 터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를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능력이야말로, 교사의 전문성일 것이다.

2) “놀이”는 도구가 아니다.

놀이에 대한 무의식적 오해 중의 하나는 놀이를 어른이 생각한 특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한 놀이를 유아에게 강요하며, 유아의 놀이 중에서도 게임이나 일정한 형태가 있는 놀이는 인정받고, 형태가 일정치 않고 규정하기 어려운 놀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놀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습득하고 놀이는 5개 영역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활동이란 개념과 혼동되어 왔다. 즉, 놀이를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놀이는 노는 것 자체가 목적이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3) 양질의 “놀이”는 있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즐기는 놀이라고 다 좋은 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억지로 하는 활동, 지루한 활동보다 아이 스스로 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장기적인 발달과 행복을 위해 질적으로 보다 나은 놀이는 있다. 따라서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인공적이며 구조적인 공간이나 활동, 소재를 접하게 하기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감각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고, 아이들의 잠재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활동, 소재를 접하는 놀이를 아이들을 안내한다.

≡ 4. 어떻게 놀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놀이를 실천하고자 하는가?

1) 좋은 놀이 환경이란? - 놀이를 위한 시간, 공간, 분위기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어떤 시간과 공간을 아이들에게 마련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놀이”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강조하는 아이들의 놀이를 위한 시공간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간추려진다.



-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 -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시간 공간

생태친화 보육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놀이에서 충분한 시간과 풍요롭고 안전한 공간은 필수이다. 즉, 20-30분 단위로 분절된 놀이 시간이 아니라, 여유 있게 탐색하고 시험하고 반복하고 창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보장해야 한다.

-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다양한 능력과 상상력을 시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수나 실패에 대한 부담, 제약이나 규칙이 많은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 실외는 실내보다 더 많은 자유를 아이들에게 보장할 수 있다.

-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

놀이 공간은 아이들에게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날카로운 것, 위험한 물건, 흔들리거나 불안한 구조물 등,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서 인지할 수 없는 위험요소는 미리 제거되어야 한다.

- 자연 그대로의 공간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공간, 자연 그대로의 소재가 있는 곳이 적합하다. 인공물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공간과 소재는 다양하고 풍부한 감각적 체험을 제공하며, 아이들이 구성하고 창조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자연물(물, 공기, 나무, 흙, 모래, 벌레, 식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생태친화 보육의 놀이의 구체적인 모습

(1) 자연 놀이 - 산책과 바깥놀이

산책과 바깥놀이 등, 실외에서 이뤄지는 놀이에서는 자연과 자연의 흐름에 따라 여유로운 자연놀이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생태친화 보육의 산책이나 바깥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틈새활동이나 특별한 날만 하는 활동이 아닌 일상의 생활로 아이들의 자유로움이 배여 나가는 놀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연놀이에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놀이를 신나게 즐길 수 있다. 흙놀이, 모래놀이, 물놀이, 햇빛놀이, 불놀이, 바람놀이, 뛰어 놀기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게임하기, 동화 듣기, 동식물과 놀기, 적목 및 목공놀이, 전통놀이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며, 실내 활동과 연계된 활동들도 즐길 수 있다.

□ 자연놀이 특징

자연놀이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계절의 흐름과 변화가 담겨 있으며, 자연의 흐름과 함께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알아갈 수 있다. 또한, 온몸으로 느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자연의 모든 것이 놀이의 매체이다. 준비과정이 복잡하지 않다. 자연놀이는 통합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 자연놀이는 왜 할까?

자연놀이는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 자체인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이다. 또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하여 성장, 발달하며 삶을 생기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아이들은 자연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자연을 닮아가는 과정,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생태적 삶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흙, 바람, 돌, 꽃 자연의 모든 것과 친해지고 오감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 여유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자연놀이 효과

자연놀이는 첫째, 아이들이 자연세계에 대해 본능적 친밀감을 갖게 한다. 공감, 심미감, 경이감 등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아이들간의 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서로간의 존중과 사랑, 공감, 협력을 배울 수 있다. 셋째, 교사 자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아이들의 변화

자연놀이를 통해 나타나는 아이들의 변화는 첫째, 몸이 튼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맑은 공기, 따뜻한 햇볕, 자유로운 환경에서 놀이의 놀이는 아이들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

둘째,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알게 한다. 아이들은 들꽃, 들풀, 물, 나무, 개구리, 지렁이, 개미 등의 생명을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존재와 소중함을 배운다.

셋째,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한다. 구조화 되어 있지 않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놀잇감을 찾고 새로운 자연놀이를 즐긴다.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확장하고 변형시킨다.

넷째, 관찰력이 높아진다. 마음껏 느끼고 바라보며 관찰력을 키울 수 있다.



산책



..... 꼬물꼬물 개구리 알 탐색하기

경칩이 되면 개구리 알이 연못에 나타난다. 개구리 알을 발견한 아이들은 개구리 알이 나왔다고 환호성을 지른다. 이번엔 반딧불이 연못에서 귀한 도롱뇽 알도 발견해서 더욱 들뜬 아이들이다. 개구리 알을 보고 난 후 매일 연못에 가보자고 한다. 올챙이를 통해 담아와서 교실에서 관찰해보다가 다음날 다시 연못에 풀어주기도 하며 한달내내 올챙이, 개구리를 만나는 재미로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우와, 신기해! 벌레 살펴보기

여름이 되면 나뭇잎에 애벌레와 무당벌레등 많은 벌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나뭇잎을 꼼꼼히 탐색한다. 나뭇잎에 붙어 있는 애벌레와 각종 곤충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며 루페와 돋보기로 자세하게 보기위해 집중한다. 개나리 잎벌레의 똥도 살펴보고, 무당벌레가 날아오를 때 날개짓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살아있는 생명은 다 소중한다는 것을 산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 주르륵, 주르륵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빗소리를 들어보거나 비 오는 숲속을 거닐어 보기에 우리 아이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신이 난다. 그렇기에 비오는 날이라도 바깥놀이를 못할 것이라는 걱정 없이 등원한다. 물로 하는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평소 다니던 나들이 길도 풀내음이 달라지고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달팽이, 지렁이들을 만나며 새로운 풍경을 눈에 담는다. 비온 뒤 젖은 땅을 맨발로 걸어보며 오롯이 자연을 느낀다.

아이~추워 겨울 산책

겨울이 되면 아이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겨울 산책을 나간다. 날씨가 너무 추워도 아이들은 추운 줄 모르고 산책이 마냥 신난다. 눈이 와 하얗게 변한 산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계절이 또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추운 날씨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꽁꽁 얼어 얼음이 된 모습도 구경해보고 나무의 나뭇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도 만나보며 겨울을 잘 이기고 봄에 만나자며 이야기도 해본다.



바깥놀이



..... 토란 토란 우산놀이

밭에 심어져 있는 큰 나뭇잎 이름은 무엇인지 물으며 토란잎을 손으로 탐색하고 관심을 갖는다. 텃밭에 심어 놓았던 토란을 수확하는 날. 토란잎을 자른 토란대로 우산 놀이를 하거나 햇빛을 가리며 자유롭게 놀이한다. 물 조리개로 비를 만들어 토란대 우산 아래로 들어가 본다. 물이 안 빠져 나가게 토란잎을 오므려 보기도 하고 토란잎으로 게임도 하고 토란잎 위를 도르르 굴러가며 물의 움직임도 탐색해보는 놀이가 즐겁기만 하다.

철썩, 철썩 진흙놀이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놀잇감은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 아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놀이할 수 있는 것의 으뜸은 진흙이 아닐까 싶다. 처음에는 흙이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진흙의 미끌미끌한 감촉에 놀이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한다. 망설이는 모습을 인정해주고 진흙을 콕콕 질러보거나 그림그리기, 손도장 찍기 등을 해본다. 천천히 진흙과 친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니 어느새 아이들은 진흙을 가지고 온몸으로 놀이한다.



..... 알록달록 단풍, 낙엽놀이

어린이집 뒤로 초안산이 있어 자연의 변화를 옆에서 바로 느낄 수 있다. 자연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눈에 띄게 변하는 때가 바로 단풍이 들어가는 가을이다. 나뭇잎은 어느 계절에도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매개체이지만 가을 단풍과 낙엽은 자연만이 나타낼 수 있는 색, 흐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알록달록한 단풍잎으로 꽃을 만들어보고 색깔별로 구분해본다. 낙엽이 지면 산을 오르며 밭에 밟히는 소리에 즐겁고 낙엽이불, 낙엽비 등 다채롭게 아이들만의 방법으로 놀이하는 모습이다.

보드득 보드득 눈놀이

아이들은 겨울이 되면 창문을 보느라 바쁘다. 창문 밖으로 눈이 오나 안 오나 살피기 때문이다. 눈이 오면 자연스레 외투를 걸치고 바깥놀이를 나간다. 새하얀 눈밭에 누워 팔과 다리를 좌우로 흔들어 자기를 닮은 작은 천사를 만들고, 킁킁거리며 자기 몸만한 썰매를 왔다갔다 열심히 눈썰매를 타는 모습을 보며 신이난다. 또 눈을 문쳐 눈사람을 만들어본다. 어린이집 문 앞에 눈사람을 만들어 어린이집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말하는 모습이 참 귀엽다.





(2)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생태친화 보육의 놀이는 분명 실외의 산책이나 숲, 바깥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태친화어린이집에서는 실내에서도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생태보육을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내놀이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① 천을 사용한 놀이 - 광목천 놀이/보자기 놀이 (3살반의 사례)

긴 광목천을 아이들 눈높이로 고정시켜준다. 밑으로 지나가며 놀이하기도 하고 천을 잡고 흔들기도 한다. 나무집게, 빨래집게를 제공해 주니 아이들 천에 집게를 꽂으며 놀이한다. 선생님이 이불을 걸어주니 서랍장에서 여벌옷을 꺼내 걸기도 하고 직접 자신의 바지를 벗어서 걸기도 한다. 흔들거리는 천을 서로 도와 고정하고 어느새 널려진 빨래에 함께 기뻐한다. 같은 천을 아이들 발목 높이로 고정하니 천을 따라 걷기도 하고 두 발로 뛰어넘기를 하며 놀이한다. 반복해서 놀이하다 흥미가 떨어지면 다른 놀이방법을 찾는다. 놀이하다 느슨해진 천을 손으로 들어 지나간다. 한 명이 들면 다른 친구들도 옆에 서서 함께 한다. 동대문을 열어라 노래를 불러주니 자연스레 천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둘러 움직이며 즐거워한다. 같은 천도 어느 높이에 있냐에 따라 놀이하는 법이 다르다.



② 상자놀이 (4살반의 사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남은 상자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크기의 쌓기 블록이 되어 여러 가지를 구성하는 놀잇감이 된다. 아이들은 단순히 상자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놀이에도 재미를 느끼며 상자를 충분히 탐색하고 상자를 뒤집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여러 개의 상자를 쌓아 탑을 만들다가 쓰러트리며 즐거워한다. 망가지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의 쌓인 마음을 풀어주기도 한다. 좁은 공간에 여럿이 들어가서는 뚜껑을 닫으며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다. 아이들에게 상자라는 작은 집이 생기면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안에서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다. 종이상자가 무게를 못 버티고 이음새 부분이 찢어지면 처음에는 집이 망가졌다고 속상해 하기도 하지만 이내 커져 버린 상자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도 한다. 여름에는 배가 되었던 상자들이 겨울에는 아늑한 집이 되기도 하고 썰매가 되기도 한다. 구멍이 뚫린 곳은 창문이 되어 아이들이 바깥풍경을 살필 수 있게 되고 날개 부분은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닫는 문이 된다. 상자를 뒤집어 문이 아래쪽에 오기도 하는데 몸보다 더 큰 집을 이고 다니는 소라게처럼 보이기도 한다.



③ 손끝놀이

손끝놀이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놀이이다. 요즘처럼 손가락 하나로 뒤편지 할 수 있는 세상은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양한 자연물들과 흙을 만지고 놀이하면서 손의 힘은 커진다. 흙으로는 만드는 여러 가지 모양들은 공기, 비석치기 등 다른 놀이로 연결되기도 한다.

□ 실놀이

아이들에게 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놀잇감이다. 단순히 실을 묶어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우와 그게 뭐예요? 어떻게 노는 거예요?”라며 질문 주머니를 연다. 가정에서 경험이 있는 유아들이 “나 그거 알아!” 하기 시작하며 실뜨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놀이는 금방 온 교실



에 전파된다.

실뜨기 놀이는 일 년 내내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 중 하나이다. 실뜨기를 스스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들기에 매듭짓는 방법을 배워보기도 한다. 짧은 실을 돌려 그 구멍 안에 실을 넣기 위해 집중하여 앞으로 쭉~욱 나온 입들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실은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데 좋은 작업물들이 나온다. 실뜨기를 한 단계 한 단계 해낼수록 바뀌는 모양들이나, 단옷날 장명루 팔찌 만들기 같은 것들이 모두 아이들의 작업물이다. 장명루 팔찌 이후에는 아이들의 손목에 주렁주렁 팔찌들이 한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의 손끝은 놀이를 통해 야무져갔다. 금세 자신들이 뚫은 구멍에 실을 꿰어 바느질하기 시작하고는 끝낸다. 짧은 길이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해냈다는 만족감에 “한 번 더 하고 싶어요!”하고 외친다. 이때의 작업물은 한 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동안 쏟은 정성에 걸맞은 멋진 것이었다.



□ 바느질



바느질은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아이들은 이게 무엇인가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금세 방법을 깨닫고 좋아한다.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자신의 성장을 눈으로 볼 수 있어 더 즐거워하는 것 같다. 푸싱핀, 바늘에 대한 위험정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조심하며 안전하게 놀이를 한다. 돌아가며 바느질 선생님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 직조 가방 만들기



“직조로 가방 만들어요.” 하며 부모님들께 이야기 드리면 “아이들이 그걸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우리 애가 할 수 있어요?” 라며 대부분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져 물어보신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말씀드린다. 후에 아이들이 직조를 하는 모습을 보시기도 하고 직접 만든 가방을 만들어서 가정에 가져가면 너무 잘 만드는 모습에 놀라신다. 아이들의 능력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 5. 놀이 속 교사의 역할



많은 생태친화 보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마냥 놀리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 이러한 부담감은 아이들의 놀이시간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불명확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태친화 보육에서 놀이 속 교사의 역할이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의 제공자

놀이하는 아이를 위해서 교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놀이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다. 특히, 실외 자연놀이를 위해서는 각별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사계절에 맞는 옷차림과 준비물을 준비한다.
- 곤충, 동물, 유해 식물에 관한 대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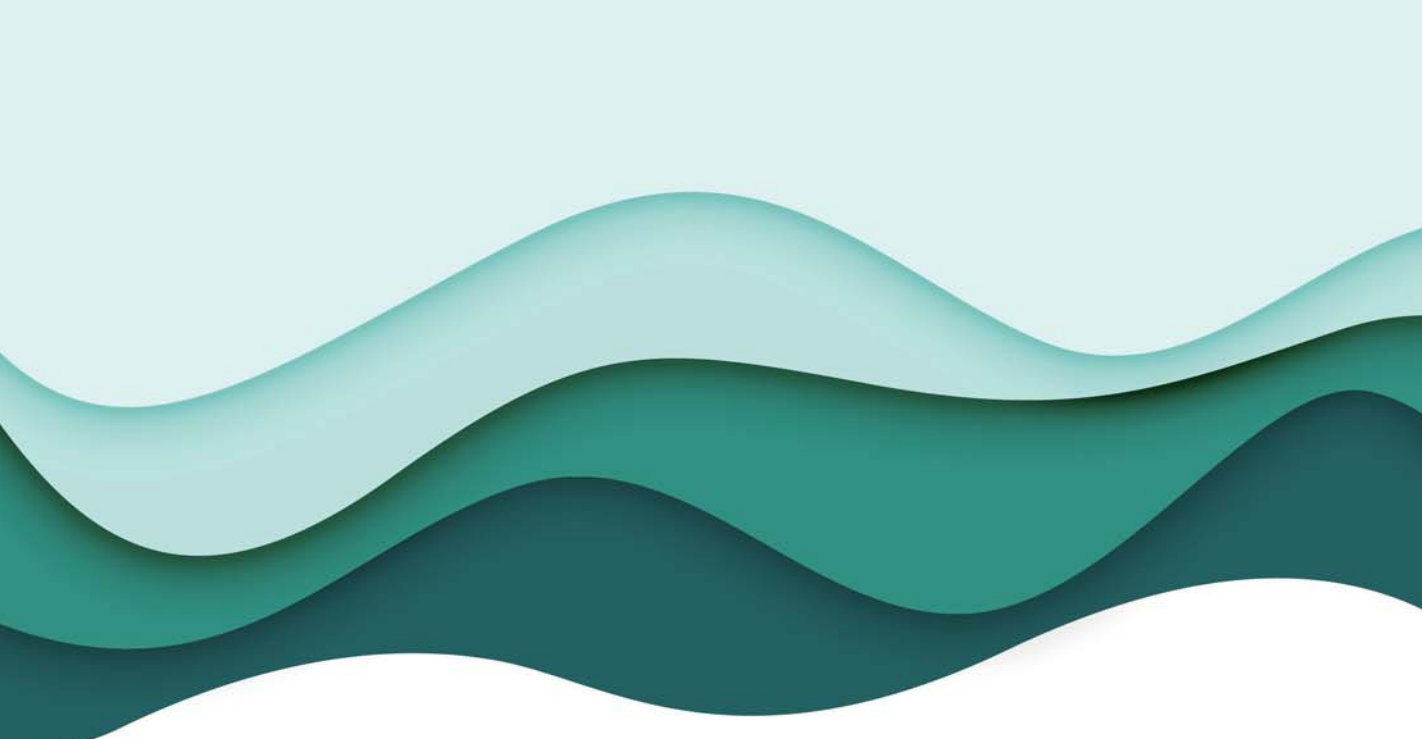
- 나뭇가지, 돌 등 자연물에 의한 상처에 관한 대비를 한다.
- 활동은 아이의 체력이 절반쯤 남을 정도로 한다.
- 교사는 수시로 아이들의 상태를 살펴 사고를 예방한다.

2) 관찰을 통해 아이를 이해한다.

교사는 놀이하는 아이의 모습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아이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아이들의 놀이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함께 놀거나 혹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교사는 그 아이의 정서적 상태, 성격, 관심사 등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3) 놀이의 참가자

교사의 역할은 함께 놀아주는 것이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스스로 배우지만, 교사와 함께 놀면서 다양한 놀이 방법들을 전수받는다. 교사의 개입으로 지루해져가던 놀이가 재미있어질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에 참가함으로써, 놀이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고, 아이들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이어줄 수도, 차별없이 고루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



제4강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세시풍속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1. 절기와 세시로 풀어가는 생태친화 보육



영유아들과 일 년, 한 달, 그리고 일주일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친화어린이집에서는 자연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이 삶에서 자연의 리듬과 주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절기와 세시를 중심으로 하여 한 해를 꾸려나가므로 절기와 세시는 일 년의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축이 된다.

2. 절기란?



절기(節氣)는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음력을 이용하였으므로 24절기도 음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24절기는 양력으로 매월 4~8일 사이와 19~23일 사이에 생긴다. 음력을 쓰는 농경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절기가 만들어졌지만 절기는 태양의 운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절기에 관하여

절기(節氣)란 시절의 기운이란 뜻이다. 절기는 해가 한 해에 걸쳐 가는 길을 말한다. 겨울이면 해가 낮아지고 여름이면 해가 높아지면서 지구상의 모든 계절과 기후의 변화가 나타난다. 지구의 축이 황도면에 대해 23.5도 기울어져 있다. 바로 23.5도라는 기울기가 절기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춘분점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동안 생기는 각도를 황경이라고 하는데 360도를 24등분하면 한 각이 15도를 이룬다. 360도는 365일과 거의 비슷해서 하루에 1도씩 황도면을 옮겨 다닌다. 그런데 지구가 공전하는 면이 정확한 원이 아니고 약간 타원인데다가 이 타원조차도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약간 빠르게 약간 느리게 돌아서 한 절기에서 다음 절기로 옮기는데 걸리는 날수가 14일에서 16일로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절기가 태양력의 성격이 있음에도 새 절기의 날짜가 고정되지 않아 춘분이 3월 20일이 되었다가 21일이 되었다가 한다. 한 해를 24등분해 놓은 절기는 매우 훌륭한 시기구분의 척도가 된다.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의 높낮이와 시절의 구분인 절기가 서로 대응하기 때문에 각 절기는 저마다 자기 시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름이 길어졌다고는 하는데 8월 초인 입추에는 변함없이 덥지만 그 다음 절기인 처서에 다다를 즈음부터는 하늘이 쉑 올라가고 백로에는 아침과 한낮의 기온차가 분명해지면서 이슬이 내린다(출처: 김희동, 2007).





≡ 3. 세시풍속, 왜 할까요?



세시(歲時)란 세월과 같은 의미로 일 년 열두 달을 두고 바뀌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일 년 열두 달을 두고 바뀌는 생활 혹은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기부터 세시풍속을 ‘생활’의 일부로 경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시풍속은 우리 겨레의 열과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활의 주기성을 알게 한다. 우리의 건강한 먹을거리,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자연의 이치,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

≡ 4. 세시풍속,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교사의 준비

첫째, 세시풍속이 낯설다면 쉽게 알아보기 위해 달력에 명절과 절기를 미리 표시해 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시잔치가 돌아올 것이다. 잔치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도 있으므로 미리 달력에 표시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사는 절기와 명절 잔치를 알아보아야 한다.

둘째, 아이가 세시풍속 잔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잔치가 교사 주도가 아닌 아이들이 직접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구경꾼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즐기는 것임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2) 학부모 및 주변 어른들의 도움 받기

세시 잔치에 관한 통신문을 내어 학부모참여를 높인다. 또한 명절잔치를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족참여활동으로 계획을 해 볼 수도 있다. 교사들이 잘 모르는 먹을거리, 놀거리에 대하여 주변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세시풍속, 어떻게 할까요?



1) 계획 세우기

다음은 세시풍속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토대로 계획을 해 본 예이다. 연간계획을 미리 짜두면, 세시에 관해 잘 몰랐던 교사들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원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도움을 받게 된다.

■ 연간 세시풍속 계획의 예

월(음력)	절기	명절	세시풍속 내용(놀이, 먹을거리, 풍습)
1월	입춘 우수	설 (1월 1일)	널뛰기, 윷놀이, 팽이 만들기, 연날리기, 투호, 떡국 먹기, 강정 만들기, 차례 지내기, 세배, 덕담, 설빔
		정월대보름 (1월 15일)	지신밟기, 부럼 깨기, 귀밝이술 마시기, 약밥 만들기, 오곡밥과 나물먹기, 달집태우기, 새해 소망 적기, 부처 만들기
2월	경칩 춘분	머슴날 (2월 1일)	콩 볶아 먹기, 콩 소 넣은 송편 대접하기
3월	청명 곡우	삼월삼짇날 (3월 3일)	나비·제비 만들기, 풀씨를 놀이, 닭싸움, 각시놀음, 호드기불기, 진달래화전 먹기, 신수점치기
		한식 (동지+105일)	찬밥 먹기, 부엌토 가져오기, 모종 심기
4월	입하 소만	석가탄신일 (4월 8일)	봉숭아물들이기, 탑돌이, 연등 만들기
5월	망종 하지	단오 (5월 5일)	단오선 만들기, 그네뛰기, 씨름대회, 쑥 주머니 만들기, 수리취떡, 수박화채, 창포물에 머리감기
6월	소서 대서	유두 (6월 15일)	유두면, 등목하기, 유두구슬 꿰차기, 풀베기 시험
		삼복	여름과일 먹기, 삼계탕 먹기, 탁족
7월	입추 처서	칠석 (7월 7일)	직조하기, 동곡하기, 사랑떡 전하기, 제철과일 먹기, 물맞이
		백중 (7월 15일)	감자떡 먹기, 여름과일 먹기
8월	백로 추분	추석 (8월 15일)	비석치기, 사방치기, 널뛰기, 강강술래, 송편 만들기
9월	한로 상강	중량절 (9월 9일)	단풍놀이, 동시 짓기, 국화전 먹기
10월	입동 소설	상달	만둣국 먹기, 상달고사 지내기
11월	대설 동지	동지 (11월 11일)	말 타기, 까막 놀이, 다리세기, 달력 만들기, 팔죽 부리기, 팔죽 먹기
12월	소한 대한	섣달그믐 (12월 30일)	처용가면 만들기, 복조리 만들기, 무 먹기, 묵은 세배하기



다음은 월간 및 일일 세시풍속 계획의 예이다. 하지만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임을 알아 두어야 한다. 계획안에 아이들의 활동을 맞추다 보면, 유아들은 잔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잔치 당일의 먹을거리나 놀거리를 그 날 꼭 다 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교사는 아이들이 세시풍속 관련 놀거리, 먹을거리, 풍습 등을 생활화하여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월간 세시풍속 계획의 예

세시명	단오	
경험내용	단오의 의미와 놀이, 먹을거리, 풍습에 관해 알아보고 즐긴다.	
단오 알아보기	- 단오의 유래와 의미를 알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 단오의 놀이에 관해 알아본다. - 단오의 먹을거리에 관해 알아보고, 필요한 재료를 알아본다.	그림자료, 관련동화
단오 준비하기	- 교사 회의를 통해 단오 잔치를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맡는다. - 단오를 알리는 통신문을 준비해서 발송한다. - 단오 잔치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 쑥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 미리 쑥을 뜯어 말려둔다. - 단오선에 필요한 재료와 준비를 해 둔다. - 창포를 구해 놓는다.	가정통신문
단오 지내기	- 단오를 스스로 계획한다(영아반의 경우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 준비된 활동을 함께 즐긴다(놀이, 먹을거리, 미술활동 등).	
평가하기 및 추후활동 하기	- 교사 스스로 단오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이나 미흡했던 점에 관해 되돌아본다. - 단오를 지낸 느낌을 이야기 한다. - 단오에 관한 그림 그리기, 동시 짓기, 동화 만들기 등의 추후활동을 계획한다.	

■ 일일 세시풍속 계획의 예

세시명	단오		
경험내용	단오의 의미와 유래를 알고 즐긴다.		
준비하기	- 단오의 세시풍속 중에서 오늘 경험하게 될 활동에 관해 이야기한다. - 삼베를 바느질해서 삼베 주머니를 만들어 둔다. - 창포를 미리 폭 삶아서 준비해 둔다.		그림자료, 관련 동화 삼베, 마끈, 돛바늘
열기	놀이 및 풍속	- 그네 앞에 방울을 맨 장대를 세우고, 발로 방울을 차며 놀이 한다. 방울의 높이를 점차 높여가며 놀이한다. - 두 편으로 나누어 살바를 매고 씨름을 한다.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린 유아에게 스티커를 붙여준다. - 미리 준비한 부채 본에 먹과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꾸미고, 손잡이를 달아서 완성한다. - 미리 만든 삼베 주머니에 말린 쑥을 넣고 입구를 묶는다. 열매로 장식한다. - 삶은 창포물은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머리를 감는다.	방울, 장대 청, 홍 살바, 징, 스티커 부채 본, 먹물, 물감, 대나무 삼베 주머니, 말린 쑥, 열매 창포물, 대야, 수건
	먹을거리	- 쑥떡을 동그랗게 빚어서 수레바퀴 모양 틀에 찍어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는다. - 제철 과일로 화채를 만들어 먹는다.	떡살, 쑥떡 제철과일, 오미자차
접기	- 가장 재미있었던 놀이와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동시를 짓고, 친구에게 소개한 후,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2) 세시풍속 실천 사례: 단오

단오잔치 계획

- ☀ 일시: 2019년 0월 0일
- ☀ 장소: 어린이집 1층 놀이실 및 바깥놀이터
- ☀ 대상: 영아반, 유아반

□ 놀이 및 풍습

활동내용	방법	장소	준비물	책임자	담당자
씨름	두 명씩 나오게 해서 살바를 묶어 준 뒤 북소리에 맞추어 씨름을 한다.	벚나무아래	청·홍 살바, 북	○○반	○○반 선생님
창포 머리 감기	창포 삶은 물에 찬물을 섞어서 대야에 부어준 후 머리를 감는다.	화롯가	찬물 담을 큰대야, 바가지, 세숫대야 10개, 수건 반벌 5개정도	□□반	□□반 선생님
쑥 주머니 만들기	교실에서 미리 돗바늘로 주머니를 만들어 쑥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 끈을 묶고 나서 열매를 붙여 주어 완성한다.	등나무 밑, 축구장 (돗자리 깔기)	망사, 글루건, 전선, 열매들, 마끈 500줄	△△반	△△반 선생님
단오선 만들기	부채에 면봉으로 먹물과 물감을 찍어 예쁘게 꾸며서 완성한다.	파고라 안 (돗자리, 책상 준비)	부채 250개, 먹물, 물감, 면봉 3통	◇◇반	◇◇반 선생님

□ 먹을거리

활동내용	방법	장소	준비물	책임자	담당자
수박화채	손가락으로 수박을 파내고, 앵두는 꼭지를 따서 볼에 담는다. 그리고 참외 속을 파내고 잘게 자른다.	1층 놀이실	수박 3통, 앵두 1kg, 참외, 칼 40개, 볼 5개, 컵 180개, 손가락 180개, 오미자	△△반	△△반 선생님
수리취떡	고물을 살짝 문혀 수레바퀴모양 틀을 찍고 콩고물에 문혀서 먹는다.	1층 놀이실	쑥절편 수레바퀴 콩고물	□□반	□□반 선생님



□ 사전활동

- 1) 단오 알아보기 2) 쑥 뜯어 말리기
- 3) 열매 주워오기 4) 현수막 만들기

□ 당일 활동

- 1) 팻말 준비(담당자 : 000)
- 2) 1층 놀이실 및 바깥 놀이터에 전통음악 틀기(담당자 : 000)
- 3) 마당별 준비 확인(담당자 : 000)
- 4) 학부모 도우미 배치(담당자 : 000)

≡ 6. 세시풍속, 누구와 할까요?



아이들의 초대를 받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시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잔치마당 곳곳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일손이 필요한 곳에는 손을 보태주고, 직접 널을 뛰거나 방아를 찧으면서 잔치의 흥을 더해 줄 수 있다.

세시풍속 본래의 의미를 살리려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연 만들거나 약밥 및 강정 만들기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레 어른들의 체험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세시풍속 잔치에 동네어른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큰 어울림 마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 7. 세시풍속,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1) 봄에 하는 세시풍속

(1) 삼월삼짇날

삼월삼짇날은 음력 3월 3일로, 아이들과 함께 새 학기에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날이다. 봄을 알리는 행사로 아이들과 함께 봄에 관한 먹을거리, 놀 거리, 풍습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 화전 만들어 먹기

미리 아이들과 함께 진달래와 쑥을 먼저 뜯어서 준비를 해 둔다. 진달래의 경우 철쭉과 잘 구분을 해야 하는데, 진달래는 가지에 잎이 거의 없고, 철쭉은 가지에 잎이 많이 달려 있다.

□ 제비, 나비 만들어 날리기

삼월삼짇날은 제비·나비를 만들어 날리는 풍습이 있다. 영아반은 나비 본에 데칼코마니를 해서 표현을 하고, 유아반은 각자 나비를 만들어 꾸미기를 한다. 제비는 만들어 놓은 본에 아이들이 배와 눈을 붙여 친구들과 날리기 시합을 한다.

□ 솔잎씨름

두 가닥(V자)있는 솔잎을 엇갈아 엮은 다음, 잡아당겨 먼저 끊어지는 쪽이 지는 놀이로, 쑥과 진달래를 뜯으러 갔을 때 미리 준비를 해 두면 좋다.

2) 여름에 하는 세시풍속

(1) 단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바쁜 모내기 후, 쉬면서 제철과일과 쑥을 넣어 만든 떡을 나누어 먹고 씨름이나 그네타기, 무더위를 대비한 부채 만들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쑥주머니 만들기 등의 풍습이 전해져 오는 날이다.



□ 수리취떡 만들어 먹기

단오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 수리취떡이 있다. 쭈뼛 떡에 수레바퀴 모양의 도장을 찍는 것인데 쭈뼛떡을 덩어리로 만들어 와서 아이들이 동그랗게 빚어 도장을 찍어 보는 것도 좋다.

□ 부채 만들기

부채는 영아반의 경우 면봉, 먹물, 물감을 이용해서 찍기를 하고, 유아반의 경우에는 각자 원하는 그림을 그려 부채를 꾸며 볼 수 있다.

□ 창포물에 머리 감기

창포를 푹 삶아 찬물과 섞어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 준다. 처음에는 냄새로 인해 잘 감지 않으려고 하던 아이들도 친구들이 머리를 감고,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 쭈뼛 주머니 만들기

미리 말려 둔 쭈뼛과 삼베 주머니 양쪽에 편치로 구멍을 뚫어 마끈으로 꿰어 둔다. 주머니에 말린 쭈뼛을 넣고, 위쪽을 동여매고, 각종 열매들로 장식한다.

□ 씨름하기

청, 홍피를 가져다가 아이들 허리에 묶고 두 명이서 씨름을 한다. 아버님의 참여가 있으면, 심판을 보거나, 기술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으면 씨름판이 훨씬 더 즐거워지기도 한다.

(2) 유두

음력 6월 15일인 유두는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이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동쪽에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풍습이 전해져 오는 날이다.

□ 유두 국수 먹기

유두에는 국수를 먹는데 이 날 국수를 먹으면 기다란 국수 면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이들도 국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 비석치기

비석같이 납작하고 가름한 ‘비석 돌’을 세우고, 비석 돌과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로로 줄을 긋는다. 줄 위에 서서 ‘던지는 돌’로 비석 돌을 맞혀서 쓰러뜨리는 놀이이다.

□ 등목하기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풍습을 대신해서 등목을 하며 더위를 식혀 보는 것도 좋다. 미리 물을 받아서 햇볕에 내 두었다가 미지근하게 된 물을 등목에 사용한다.

□ 유두구슬 만들어 목에 걸기

오색구슬을 삼색실에 꿰어 목에 걸거나, 집에 걸어두면 액을 쫓는 다는 의미가 있어 아이들과 유두구슬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3) 칠월칠석

음력 칠월칠일인 이 날은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 전해져 오는 날이다.

□ 직조하기

아이들과 직녀처럼 직조를 해 본다. 직조틀에 직조를 해서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대형 직조틀을 만들어 아이들 전체가 직조를 함께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동극하기

견우직녀의 동화를 듣고 나서 아이들이 동극을 준비를 해 보는 것도 좋다. 각자 역할을 정해 대사를 외우고, 의상을 준비를 해서 동생들을 초대해 보여 주기도 한다.

□ 사랑 떡 전하기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 우리 떡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떡을 잘 포장해서 꾸민 다음,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3) 가을에 하는 세시풍속

(1) 추석

중추절(仲秋節)·가배(嘉俳)·가위·한가위라고도 부른다. 한가위의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의 옛말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을 뜻한다.



□ 송편 만들어 먹기

쌀가루 익반죽을 떼어 동그랗게 빚다가 납작하게 누르고 그 속에 깨소를 넣어 반달모양으로 만들어 찌서 먹는 것이다. 아이들은 보통 송편 정도는 아주 익숙하게 빚어내기도 한다.

□ 강강술래

강강술래 노래에 맞추어 모든 연령이 통합하여 돌기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는 고사리 끊기, 남생이 놀아라. 청어 엮기 등 다소 복잡한 놀이 등은 만 5세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 보는 것도 좋다.

□ 가마타기

몸집이 비슷한 친구 셋이 짝을 만들어서 모이면 두 아이가 손을 맞걸어 잡은 위로 다른 한 아이가 다리를 걸쳐 타는 놀이이다.

4) 겨울에 하는 세시풍속

(1) 동지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음(陰)이 극에 이르지만, 이 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 동지 팔죽 만들어 먹기

아이들이 직접 새알심을 만들어 팔죽을 끓이는데 아이들은 유독 동지가 되면 자기 나이 만큼 새알심을 많이 챙기기도 한다.

□ 달력 만들기

동지가 지나고 나면 새해 달력을 준비한다. 개별적으로 만들어 보는 달력도 좋지만, 공동작업으로 다음 해 달력을 대형으로 만들어 걸어 보는 것도 좋다.

□ 까막놀이

원 안에는 술래는 눈을 가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박수를 쳐서 술래를 유인하는 놀이이다. 원 밖으로 나가거나, 술래에게 잡히면 그 아이가 다시 술래가 된다.

□ 다리세기

여러 명의 아이들이 마주 보고 앉아 다리를 엮어 노래에 맞추어 다리를 켜다. 노래가 끝나서 마지막 걸린 다리를 빼 내는 놀이로 다리를 먼저 빼면 이기는 놀이이다.

□ 제기차기

제기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다만 영아반은 제기 차기를 힘들어 하므로 나뭇가지에 실을 연결을 해서 제기를 달아 주기도 한다.

(2) 설

□ 떡 썰기와 떡국 먹기

하루 정도 말려 두었던 가래떡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썰어 볼 수 있도록 한다. 딱딱해서 조금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칼 사용을 조심스럽게 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 차례 지내기와 세배하기

차례상을 차려두고, 함께 차례를 지내고, 어른께 세배를 드린다. 올바른 세배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절을 바르게 해보는 것도 좋다.

□ 연 날리기

아이들이 날리기에는 가오리연이 좋다. 튼튼이 만들어 놓은 연을 날리기도 하고, 당일에 만들어 보기도 한다. 영아반의 경우 열레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의 줄을 조금 길게 해 주어 놀이를 하도록 하고, 유아반의 경우 바람을 이용해 연을 직접 날리게 한다.

□ 팽이 만들기

폐CD를 이용하여 팽이를 만들 수 있다. CD의 구멍에 구슬을 넣어 붙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구나 쉽게 팽이를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정월대보름

□ 지신밟기

사물놀이를 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어린이집과 주변 곳곳에서 “잡귀잡신은 물알로, 만복은 이리로”를 외친다. 지신밟기를 할 때, 주변 이웃들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



□ 부럼 깨기와 귀밝이술 마시기

부럼으로 호두, 땅콩, 밤을 꺼내 먹는데, 호두는 아이들이 납작한 돌을 이용하기도 한다. 세계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 뿌직 하고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을 재미있어 하기도 한다. 귀밝이술의 경우, 매실 엑기스를 담가 놓았던 것에 막걸리를 아주 조금 섞어 아이들과 함께 맛을 본다.

□ 오곡밥과 나물먹기

1년의 건강을 빌며 오곡밥과 나물을 점심밥으로 먹기도 한다.

□ 달집태우기

아이들이 산책을 가서 구해온 청솔가지를 세워 달집을 만들어 세워 둔다. 아이들이 오전에 적은 소망도 달집 사이에 넣고, 설날에 가지고 놀았던 연에도 소원을 달집에 넣어 함께 달집에 태운다.

세시풍속



..... 봄꽃이 피는 삼월삼짇날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삼월 삼짇날에는 아이들과 진달래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화전을 만들기 전 꽃이 피는 과정을 살피고 채집한다. “진달래야 내가 조금만 가져갈게~.” 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다. 찹쌀반죽에 꽃을 올려 새참시간에 먹으니 변한 절기와 아이들이 직접 느낀 봄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세시풍속을 즐긴다.

여름을 맞이하는 단오

단옷날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 함께 더위를 이겨낸다. 부모님과 함께 실 끝을 마주잡고 돌려 만든 팔찌를 손에 차며 오방색에 대해 알아보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체험을 해본다. 자연물을 이용해 단오선을 만들고 수리취떡을 나누어 먹으며 더위를 피하는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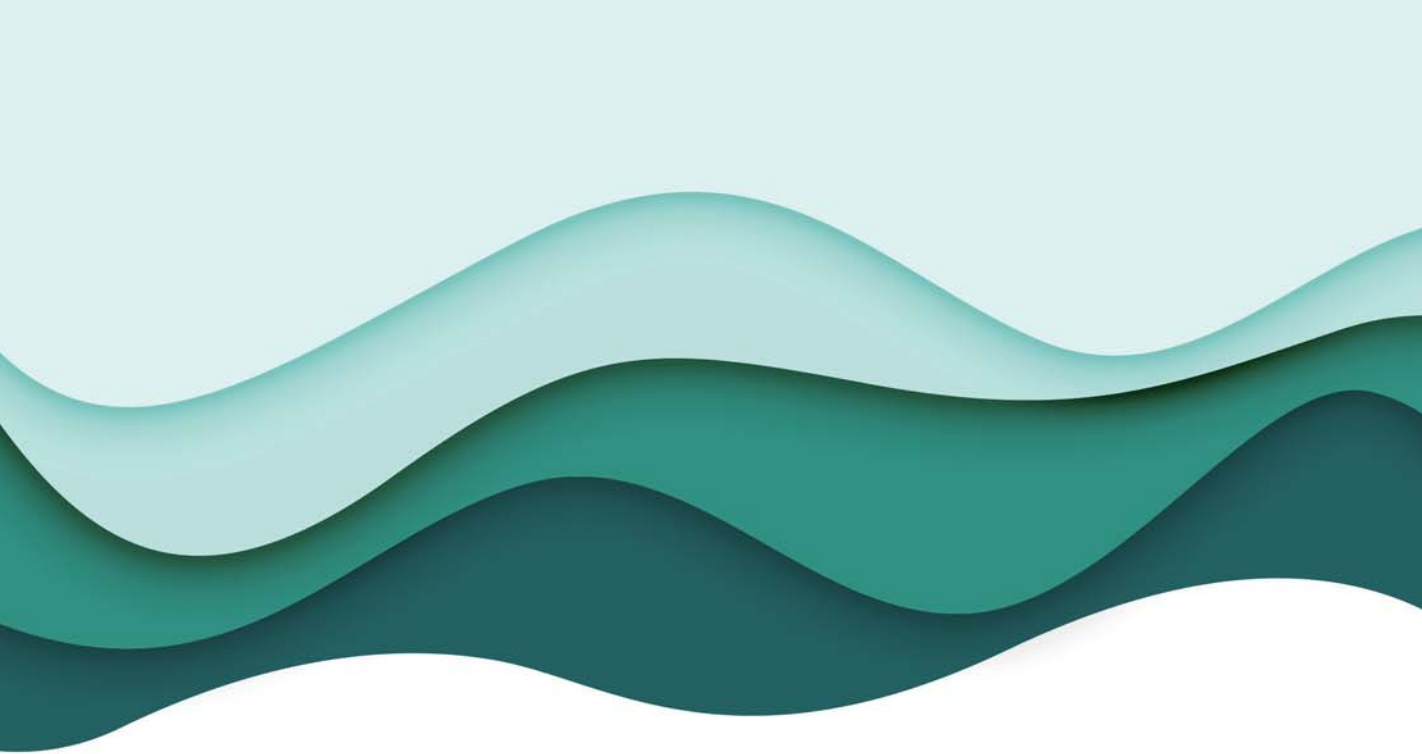
..... 가을의 기쁨을 나누는 추석

가을의 달빛이 가장 밝은 추석에는 다 같이 모여 앉아 수확의 기쁨을 나눈다. 넓은 들판으로 나가 보름달의 모습을 나타내는 강강술래를 한다. 송편과 대구포전, 삼색꼬지를 만들어먹으며 차례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와 같은 세시놀이들을 친구들과 함께 해보며 함께 어울려 보내는 명절의 분위기를 느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설날

설에는 어른들께 새해의 건강을 기원하며 세배를 드린다. 한복을 입고 등원해 원장님께 세배를 드리는 물론 경로당을 찾아 동네 어르신들께도 인사를 드리며 어울려살기를 실천한다. 떡국도 함께 먹으며 한 살이 많아졌음을 기뻐한다. 팽이놀이, 공기놀이, 투호놀이 등, 반 마다 놀이를 정해 세시놀이를 하니 동생을 배려하고 형님들을 모방하며 함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강 | 생태친화 보육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삶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생태친화 보육에서 말하는 건강한 삶이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생활을 의미한다. 아이들의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건 어떤 것을 말할까? 바로 가장 아이답게 자라는 모습을 의미한다. 무릇 아이라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게 1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아이의 본성을 살리는 다양한 활동 및 놀이를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텃밭, 먹거리(식생활 교육), 자연건강에 대한 생태친화 보육의 관점과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이들의 건강한 삶, 왜 중요한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아이' 는 어떤 아이인가요?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선생님이 실천한 일들을 한 번 생각해볼까요?

보육현장에서 오랜 기간 아이들과 생활해 온 선생님들은 요즘 아이들을 보며 많은 걱정을 늘어놓는다. 예전에 비해 아이들이 걷거나 뛰는데 익숙하지 않고, 아이들의 식습관도 점차 편식과 폭식, 과식 위주로 변하고 있으며,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에 너무 어린 시기부터 노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우려이다.

우리 삶은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무엇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판단 하기도 전에 많은 것들에 노출되고 있다. 아이들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그저 어른들의 기준에 맞는 생활을 쉼 없이 해오고 있다. 이런 생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집 문을 나서서 어린이집 교실까지 엄마가 안아서, 차에 태워서 데려오는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오지 않아 바깥놀이를 하지 못한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가정의 식탁은 점차 서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외식과 레트로 식품 등에 익숙해졌고, 소아과, 백화점, 마트 등 아이와 부모가 모여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기계음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일까? 다카이 히로오미(2005)는 이를 영유아의 ‘라이프 해저드’, 한마디로 ‘생활파괴’라고 칭하고 있으며, 생활이 파괴된 아이들은 감기, 변비와 같은 가벼운 질병 외에도 비만, 아토피, 소아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²⁾을 만나게 되었고, 정서불안, 스트레스, 과잉행동, 성격장애 등 마음의 병도 얻게 된다.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삶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어린이집에서의 일 년의 계획, 한 달의 삶, 오늘의 일과를 생각할 때, 수업과 활동이 아닌 아이들의 삶을 고민해봤다면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하게 된다. 더불어 건강을 해치는 생활환경과 습관에 아이를 둘 수 없다는 데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건강한 아이가 있는 사회는 웃음과 희망이 넘쳐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살림’의 세상이 될 수 있다.

2) 생활습관병이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병으로 과잉섭취와 같은 불균형한 식생활, 운동부족 등의 활동량 감소, 과로와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되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 2. 아이들과 실천하는 건강한 삶



1) 텃밭 가꾸기

최근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텃밭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텃밭 가꾸기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텃밭 가꾸기가 아닌 텃밭 작물 수확하기, 텃밭 구경하기 등의 활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자아낸다. 아이들은 텃밭 가꾸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바른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텃밭 가꾸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한다.

첫째, ‘일상적으로 텃밭 가꾸기’이다. 텃밭은 딸기체험, 감자 캐기 체험과 같은 현장학습과 같은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때가 되면 물주고, 벌레 잡고, 잡초를 솎아주는 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다. 때문에 생명을 돌보는 일이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텃밭 가꾸기의 전 과정(퇴비 만들기, 땅 고르기, 작물 선정, 파종, 물주기, 잡초 뽑기, 수확 등)을 ‘아이와 선생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땅 고르기에 흥미가 없던 아이가 잡초를 뽑을 때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한 고랑을 다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물 주기에만 관심이 있어 스스로 물주기 담당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이 친구는 여름이 되면 하루에도 오전, 오후 물 주러 가기를 실천하기도 한다. 때로는 전혀 텃밭 가꾸기의 전 과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텃밭을 찾는 경험만으로도 훗날 아이는 생명의 자람을 기억할 수 있다. 영아들 역시 참여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의 누적으로 상위연령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계절에 맞는 텃밭 가꾸기를 알아차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유기농법’으로 텃밭 가꾸기이다. 생태친화 보육이 시작된 배경에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녹아있다. 따라서 텃밭 가꾸기를 단순히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는 경험과 노작의 기쁨, 식생활교육의 일환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로컬푸드(local food)의 필요성, 유기농법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인식을 교사가 갖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 사용으로 농산물을 오염시키거나, 토양오염, 수질오염 더 나아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의 텃밭은 수확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잡초 뽑기와 벌레 쫓아내기를 수확만큼 재미있어 한다는 점, 건강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기농법이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방법이다.



(1) 텃밭 계획하기

① 텃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볼까요.

어린이집에서 텃밭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텃밭을 찾는 일이다. 어린이집 내 외부 공간(바깥놀이터, 옥상텃밭)이나 주변에 텃밭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자텃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마저도 용이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텃밭 사업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좋은 텃밭지는 물이 가까이 있고, 햇볕이 잘 들고, 물 빠짐과 통풍이 좋은 곳이다. 텃밭에 땅의 질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텃밭이 될 수 있다. 밟아서 푹신푹신한 느낌이 드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텃밭 장소로 가까운 교외, 자연학습장 등의 땅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왕이면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적은 작물이라도 텃밭이 있는게 좋다.

② 텃밭을 즐길 준비를 해볼까요.

생태친화 보육에서의 텃밭은 하나의 교육 활동이기보다는 생명을 키우고, 돌보고, 수확하는 일상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곡식은 주인 발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처럼 습관적으로 텃밭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무엇보다 이 과정을 즐기고 정성과 애정을 쏟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여름철에 텃밭을 20~30분만 살펴봐도 땀으로 온몸이 젖고, 목 뒤덜미는 잠깐 사이 검게 타버리기 쉽다. 이 때문에 텃밭을 여러 해 경험한 선생님들은 큰 챙이 있는 모자와 뒷목을 덮을 수 있는 수건, 장화 등을 준비하고 후배교사들에게도 준비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텃밭을 즐길 준비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텃밭 가꾸기와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부모의 이해와 더불어 할머니·할아버지 텃밭 선생님, 부모 텃밭 도우미 등을 모집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연계해서 텃밭을 이어갈 수도 있다.

가정통신문 예시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3월 초 새로 입학해서 적응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점차 웃음의 바다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젠 어린 이집 생활에 점차 익숙해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텃밭으로 나가 뜻뜻한 흙내음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계속 다녔던 아이들은 텃밭 가꾸기에 익숙해 있지만 올해 새로 입학한 아이들은 아직 선생님 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텃밭 가꾸기를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자연의 품안에서 하늘, 땅, 바람, 나무, 흙, 물, 햇볕 등의 자연과 놀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생태친화 보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생태친화 보육이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을 관찰, 탐색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생태친화 보육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텃밭 가꾸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텃밭에서 계절에 알맞는 채소와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퇴비를 주며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수확하는 경험은 아주 중요 합니다. 텃밭 가꾸기로 우리 아이들은 흙의 고마움과 생명의 신비함, 노동의 기쁨,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작은 씨앗과 모종에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느끼겠지요. “싹이 났어! 예쁜 꽃이네.”, “토마토는 밑부터 빨개져.”, “곧 먹을 수 있어.”하며 작물의 성장에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아이들의 모습을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새 학기 텃밭 가꾸기 활동을 위하여 학부모님들께 다음과 같이 부탁 말씀드립니다.

- ♣ 텃밭 속에서 마음껏 흙을 만지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옷은 간편하게 입혀주세요.
- ♣ 텃밭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텃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3월 28일 텃밭 일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1년 농사를 지을 흙을 고르고 퇴비를 주고 이랑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텃밭을 일구는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은 0월 0일 오후 0시까지 어린이집 텃밭으로 와 주십시오.
- ♣ 가정에서도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스티로폴 상자에 흙을 담고 거름을 담아서 채소를 심어보세요. 매일 물을 주고 가꾸어 주면서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책임감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 될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 ♣ 봄·여름과 가을·겨울에 걸쳐 두 번의 통신문으로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의 텃밭이야기를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1년 동안의 텃밭 가꾸기에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20 ○ ○ 년 ○ ○ 월 ○ ○ 일

○ ○ 어 린 이 집 원 장



③ 텃밭 가꾸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리 어린이집 상황에 적합한 텃밭이 준비되면 이제는 작물을 심어야 한다. 선생님은 이듬해 어떤 작물을 키울지 미리 1년의 텃밭 계획을 세우고,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모종은 심어야 하는지, 얼마나 물을 주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다.

이 같은 정보들은 텃밭 가이드북이나 도시농업에 관한 다양한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텃밭의 규모가 크다면 반별로 한 고랑씩 다양한 식물을 심어보는 것도 좋다.



‘텃밭에 다 있네’

www.rda.go.kr/schoolgarden

- 농촌진흥청에서 학교 텃밭에 필요한 기술과 활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만든 정보포털 시스템
-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쉽게 제작되어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텃밭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두가 도시농부’

www.modunong.or.kr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도시민들의 농사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포털사이트를 구축
- 텃밭유형·분양·재배기술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도, 전문가컬럼, 텃밭요리 레시피, 전국적인 교육·행사, 관계법령 등과 같은 색다른 정보를 제공

(2) 아이와 교사가 실천하는 텃밭의 실제

00반(만3,4세) 이야기

이달의 농부들 ;)



하~ 농사짓기 힘드네.

바깥놀이터 한 켠에 있는 텃밭을 보았나요? 저희 어울림반 친구들이 텃밭의 흙을 뒤 집으며 텃밭 가꾸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의 작물을 무엇을 할지 고를 때, 우리의 이는 담당하게 “고추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과연 우리 어울림반 아이들이 고추를 열심히 키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호기롭게 시작된 괘이질과 삽질 10분도 되지 않아 지친 아이들. 표정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어린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텃밭을 뒤집고는 “나 이제 잘 먹을 거예요.”라며 농사의 소중함을 이렇게 몸소 느껴보았습니다. 3월 텃밭의 흙을 뒤집으며 거름을 썩을 때 텃밭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작물 잘 키워봅시다!

텃밭이야기 #모종심기와 씨뿌리기



3월에 땅을 뒤집고, 비료를 뿌리고 4월에는 영양분이 가득한 텃밭에 텃밭친구들을 심어주었습니다. 상추, 쪽갓, 방울 토마토, 해바라기, 봉선화, 브로콜리, 강낭콩 -! 모종을 다 심고 손에는 씨를 받아 들고 흙 뿌려주곤, 잘 자라라고 토닥

토닥- 몇 주 뒤, 비가 온 어느 다음날 아이들과 텃밭 구경을 갔더니 아이들 손톱만한 싹이 났어요. 어울림도 신기한지 싹을 토닥이며 “더 잘 자라.”라며 토닥이며, 신기해 했지요. 4월은 미세먼지가 심해 텃밭에 자주 가지 못하였지만, 틈틈이 텃밭에 갈 때마다 싹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자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텃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과 애정이 가득히 뻗어갈 기대하며 - 쑥쑥 자라라!





00반(만1세) 이야기



바깥놀이터 텃밭에 그동안
자라난 잡초를
사정없이 뽑아버리고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가을, 겨울에 키울
쪽파, 무, 배추를 심었지요.
봄, 여름에는 같은 작물들을
반마다 키워보았다면
가을, 겨울에는 한 반마다
한 작물씩 맡아 부지런히
키워보도록 하였답니다.



그래서 우리 튼튼이는 쪽파를
키우기로 했어요!
쪽파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도 보고...
이랑을 만들어 심어 준 뒤 흙
이불을 덮어주며
"잘 자라라."하고
사랑 가득 담아 얘기해주었어요.

바깥놀이하며 매일 물을 주는
부지런을 떨어봐요.^^



바깥놀이와 텃밭가꾸기

바깥놀이터에서 공차고도 놀고, 모래 놀이를 하며 친구에게 맛있는 걸 만들어 주기도 해요. "먹어." 하며 친구
에게, 선생님께 손가락을 건네기도 한답니다.^^ 바깥놀이를 하며 꾸준히 텃밭에 물을 주었어요. 튼튼이 덕분에
텃밭에서 자라나는 쪽파, 배추, 무, 시금치가 쑥쑥 자라는 중입니다.



2) 먹거리(식생활 교육)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전 세계 다양한 음식과 먹거리를 접할 수 있다. 제철과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수박, 딸기 같은 과일은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거리가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불안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찾는 먹거리는 생명의 먹을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생명의 먹을거리는 자연의 먹을거리, 전통의 먹을거리 등을 말한다.

우리 내 인사 중에 ‘식사 하셨어요?’ 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밥이 보약이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말도 이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다. 즉, 먹고 사는 것은 인생사의 근본이며, 음식은 생명을 보전하는 원동력이며, 건강을 지키는 기본 요소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교육계획안 보다 식단표를 더 꼼꼼히 살펴보고, 아이들 역시 그날의 활동보다 더 궁금한 것은 ‘오늘 점심 뭐예요?’, ‘간식 뭐예요?’ 같이 먹는 것에 있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바른 먹을거리를 바르게 요리해서 바르게 먹는 것을 강조한다. 생명력 있는 먹을거리를 자연의 순리에 맞도록 요리해서 바르게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몸이 좋아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 식생활 교육, 어떻게 하는가?

① 언제 할까요?

식생활 교육은 인지적인 활동에 치우치거나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어야만 지속 가능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간식을 먹을 때나, 점심시간, 세시잔치날, 소풍이나 운동회, 생일잔치날과 같이 생활전반에서 이루어진다.

간식은 보통 제철과일이나 산양유 등을 제공하는데, 친환경 재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사과나 배 등의 과일을 모두 껍질째로 내어준다. 그리고 정해진 오전, 오후 간식시간 외에도 볶은 콩과 멸치, 견과류 등을 식사시간 외에 주전부리로 제공해 저작 운동을 도와주는데, 이는 아이들의 이를 튼튼하게 하고 뇌세포 자극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시와 같은 잔치날 먹거리가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삼월삼진날 먹는 진달래 화전, 유두날 먹는 유두국수, 추석 즈음 직접 빻은 송편, 동짓날 먹어본 동지팥죽 등을 통해 아이들



은 조상의 지혜와 전통의 먹을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생일상 음식은 주로 떡이나 과일, 직접 만든 식혜 같은 것으로 하고,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 때 선생님과 친구들은 생일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한다. 소풍이나 운동회 같이 집에서 김밥이나 간식을 준비할 때도 올바른 먹을거리를 부탁한다. 고구마, 감자, 삶은 계란, 누룽지, 과일 또는 유기농 과자만 허용됨을 안내하고, 김밥에도 되도록 햄과 같은 육가공류나 색소가 들어간 단무지 사용을 피해달라고 전달한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은 점차 각 가정과 지역 사회로 번져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② 누구와 할까요?

식생활 교육은 주변의 사람들과 또래들이 함께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와 영양사, 조리사 선생님이 모두가 바른 먹거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자연농법의 제철재료와 로컬푸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하고,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교사는 식사 전 손을 씻고, 수저를 바르게 사용하는 등의 식사예절과 더불어 음식은 자연의 생명을 품고 있으며 만든 이의 정성을 담아낸 것임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밥상 언니·형³⁾을 통해 바르게 식사하는 법, 상추 싸서 먹는 법, 젓가락 사용법 등을 동생들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어린이집에서와 더불어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님이나 세시잔치 등에 엄마, 아빠가 오실 때면 준비한 먹을거리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자연스럽게 유해식품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은 산책 가는 시장에서 만나는 채소가게 아주머니, 과일가게 아저씨, 생선가게 할머니를 통해 좋은 물건을 선별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잔치 때 오신 조부모님이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밥상머리 예절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수저로 밥상을 두드리면 복이 나간다’는 이야기에서 음식에 대한 공경심을 어깨 너머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농교류활동으로 모내기나 추수 때 시골을 방문하여 쉼 한 톨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감을 알게 된다.

3) 밥상 언니·형은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연령통합 활동을 실천할 때 도움을 주는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밥상 언니는 동생들의 점심식사를 도와주는 친구를 의미하고, 산책을 갈 때 도움을 주면 산책언니, 형처럼 아이들이 하는 활동에 따라 ○○언니, 형이라 불러줄 수 있습니다.
(출처: 김은주 외, 2019)

건강한 간식 안내문 예시



건강한 먹을거리를 준비해주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긴 산책과 소풍 때 ‘건강한 간식’을 보내달라는 어린이집의 안내에 ‘건강한 간식의 기준이 무엇일까?’하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지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드리고자 이렇게 안내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생태적으로 올바른 음식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인 조작을 거치지 않고 자연의 원리에 충실한 음식입니다. 즉, 가까운 지역에서 난 제철음식이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무리 풍부한 과일이라도 그것이 수입산 과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과일 96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입 과일의 약 47%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농약의 종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으로 시력저하·기관지수축·발암 우려 등이 있는 농약이었으며,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진 않았지만 검출률이 높고 미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면역체계가 어른보다 덜 발달했고, 체중량 대비 체면적이 넓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쉬이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유기농 과자의 경우 예전만 하더라도 과자에 들어간 성분과 재료가 국산에 한정되거나 비교적 간단하고 몸에 해롭지 않은 것들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 ‘건강한 간식’의 기준에 크게 저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기농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들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산 팜올레인유’, ‘이스라엘산 바나나농축액’ 등 수입산 재료와 안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성분들이 들어간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8월, 한 유기농 브랜드의 ‘오징어 땅콩볼’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아플라톡신은 인체 발암물질로 간 손상 등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가 함께 하는 어린이집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 ○년 ○ ○월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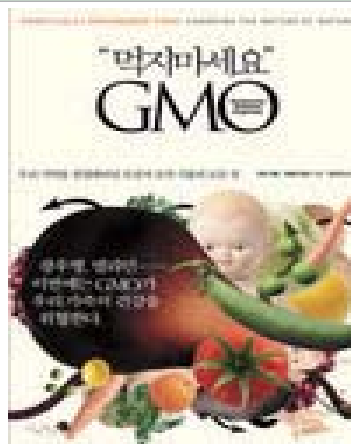
○ ○ 어 린 이 집 원 장



③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선생님은 우선 지금 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등을 먹고 자라는 양육환경이 어떤 상황을 초래하는지를 알아야 지 식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비롯하여, 주식과 간식의 균형, 배부름과 배고픔의 순환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식습관 역시 생태적 식생활을 실천하고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함께 읽어 보아요



00반(만3,4세) 이야기

[식생활] 새콤달콤 매실청만들기



여름철 필수음료! 시원한 매실청!

매실을 열심히 씻고 있으니 이든이가 "맛있는 살구냄새나요. 먹고 싶어요."라며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었지요.

매실에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 이든이가 "그럼 우리 독주스 만들어요? 죽으면 어떻게요?"라며 공포의 눈빛... 설탕과 함께 100일을 재워두면 독이 사라지고 맛있는 매실청이 된다고 하니 이든이가 "아~ 애들이 100일 자연 독 없어진데."라며 친구들을 안심시켰지요. 오후에는 씻은 매실을 이쑤시개로 꼭지를 따주지도 했지요. ^^는 매실 엉덩이에 동(?)을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고 누구 보다 열심히 했지요. 일일이 손으로 다 따 후에 조리사 선생님과 매실청을 담궈 보기로 했지요. 종종 매실청을 보며 "설탕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독이 점점 사라지나 봐."라며 확인해보곤 한답니다^^



식생활 #가래떡 만들기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가요? 바로 농업인의 날입니다. 아이들과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며, 아이살림밥상에서 가래떡 떡볶이를 만들어보았어요. 농업인의 날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직접 아이들이 가래떡을 이용해 떡볶이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이젠 칼질도 제법 능숙하게 하는 아이들. 소절미는 "나는 토끼처럼 놀이 예뻐질 거야."라며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보기도 하고 가래떡과 양파, 당근을 먹기 좋게 손질해서 짭짤한 양념과 소고기를 넣어 떡볶이를 만들어보았어요. 점심에 아이들이 직접 만든 가래떡 떡볶이를 나누어 먹으며 "내가 만들어서 진짜 맛있어요.", "이건 내가 자른 가래떡이야."라며 맛있는 점심을 먹었답니다!



(2) 아이와 교사가 실천하는 식생활의 실제

00반(만1세) 이야기



텃밭가꾸기와 식생활교육(시금치두부된장무침)



튼튼이가 열심히 물주고 가꾸었던 시금치를 캐서 튼튼 최애반찬인 두부와 함께 무쳐 '시금치두부된장무침'을 만들었어요. 오전에 시금치를 데려와 불에 담아 "이게 뭐까?" 물으니 '상추'라고 대답하는 튼튼이^^ 시금치 데치고 두부 데치고~ 데친 두부를 시식도 해보고^^ 손으로 누르며 직접 으깨어 봤어요. 된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하고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우리도 밥반찬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

시금치야, 뚝뚝 자라라



이건 뭐야? 상추 아니고~ 시금치!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호박전을 만들었어요

오후새참이 호박전이었던 날, 오전에 튼튼이와 늙은 호박 속을 긁었어요. 위생장갑도 끼고 숟가락으로 박박~ 선생님 따라 긁어보고 주황색 호박을 보고는 "이야!"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어요. 낮잠을 쿨쿨 자고 있을 때 선생님 이 빠르게 전을 구워냈고, 오후새참으로 튼튼이가 장만한 호박전을 먹었어요. 다음번에는 튼튼이가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볼까 해요. 뭐가 있을까요?^^

숟가락으로 호박 속을 긁었어요!



3) 자연건강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하지만 현실은 TV광고에서처럼 유병장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건강하다’는 의미에 대한 현대인의 관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영유아들도 다르지 않다.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자연의학적 관점의 건강관리를 한다. 자연의학은 아이는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들이 지닌 면역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즉, 건강한 아이들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자연건강, 어떻게 하는가?

①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할까요?

자연건강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실천 방법들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습관이 형성되는 영유아기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전체 연령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연건강법은 아이들의 일상생활 내에서 실천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정해진 건 없다. 교실에서 창문을 모두 열고 낮잠이 들기 전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산책 간 숲에서 할 수도 있다. 또한 바른 수면은 실내외 기관, 가정의 구분 없이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②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자연건강법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교사 스스로가 모범이 되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아프는지, 투약의뢰서는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어느 계절에 잘 아프는지 등과 같은 현재 건강상태와 아이의 상황에 따른 가정의 대처방안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이와 가정에 대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며, 이는 이후 아이들에게 적용할 자연건강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교사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연수에 참여하고, 인내심과 기다림을 바탕으로 가정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2) 아이와 교사가 실천하는 자연건강의 실제

00반(만3,4세) 이야기

풍목- 동생들과 함께한 바람목욕

시원한 바람 목욕을 하며, 아이들의 몸의 감각을 깨워보고, 몸속 나쁜 세균을 내보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동생들이 수건으로 몸을 꼼꼼히 안싸매니, "이렇게 몸을 꼼꼼히 싸매야지 바람이 우리 몸을 안들고가."라고 말을 하며, 동생들도 오죽기도 하였답니다. 꼭꼭 혀 자리도 눌러보고, 몸짓놀이를 하며 1시간의 바람목욕을 마쳤답니다.



'내가 바로 몸짓놀이 해마!'

이제 동생들과 함께 몸짓놀이를 하며 앞에서 멋진 시범까지 보이는 어울림 형아들! 동생들과 몸짓놀이를 하며 동생들이 따라 할 수 있게

'나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청하기'

아이들과 청하기를 해보며, 일주일동안 되돌아보기도 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엔 장난을 치며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싹싹싹하던 아이들이 어느 샌가 진지하게 청하기를 해보며,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형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00반(만1세) 이야기



명상

9월도 어김없이 친구와 선생님과 쓰다듬고 눈 마주치며 교감 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발 보보”, “손 보보” 하며 손, 발을 맞대며 자연스런 스킨십과 함께 ‘명상놀이’처럼 해봤어요. “간질간질~” 하며 놀다 놀 마무리는 “사랑해.”로 끝났답니다. ^^



몸짓놀이 대장 될래요!

동물형상 몸짓 놀이를 정교하게 배워볼까요! 형님과 함께하는 몸짓놀이는 함께 하는 재미가 있기도 하고 형님이 하는 정교한 몸짓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동작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기도 해요. 몸짓 놀이 덕에 유연성이 대단한 튼튼이가 되었답니다. ^^



달팽이



물개



잠자리



학 ^^;



원숭이



호랑이!



≡ 3. 건강한 삶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



1) 아이들의 감각이 살아나고 체력이 강해진다.

자연 바람 맞이하기를 비롯하여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주변과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경험 등은 아이들에게 잊고 있던 감각을 되살아나게 한다. 낮이고 밤이고 환한 불빛과 북적이는 소리, 기계음 등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피로하게 만든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산책, 텃밭 가꾸기 등을 실천하면서 오가는 대화를 살펴보면 자연의 소리와 냄새에 귀 기울이면서 잃어버렸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즐거움을 알 수 있다.

또한 물 마시기, 전통차 마시기와 같은 자연건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아이들의 변비와 같은 질병도 많이 개선되어 강한 체력을 갖게 된다.

2)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태어난 순간부터 스스로 세상 만물과 더불어 잘 사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같은 자생력과 공생력을 생태친화 보육에서는 아이들의 생명력이라고 본다. 본디 아이들은 스스로 사는 힘과 더불어 사는 힘을 갖고 태어났지만 어른들의 기대와 잣대로 된 삶 속에서 그 힘의 세기가 점점 약해져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른 식생활과 자연건강법 실천으로 면역력은 되살아나고 교사와 아이, 아이와 아이가 서로 절을 하며 모심과 공생의 기쁨을 알아간다. 텃밭 가꾸기는 아이들에게 계절의 순환을 비롯하여 스스로 탐의 가치와 수확에 따른 성취감을 배워나가며 흙과 작은 작물에도 그만의 커다란 생명력이 있음을 알게 한다.

3) 아이들이 행복해진다.

생태친화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마냥 놀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가끔 한다. 이는 텃밭을 비롯하여 몸짓놀이, 풍욕 등 생태친화어린이집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들이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눈치를 덜 보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삶의 지해를 배워간다.

더불어 마음껏 몸을 움직이고, 실내보다 바깥에서 더 많이 놀고 자연을 만나며 훨씬 더 여유로워진다. 여유로워진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유가 많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그만큼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은주, 송주은, 이영정, 임홍남, 김정미(2019). (생태유아교사의 하루를 통해서 본) 유아 교사가 알아야 할 24가지. 경기: 공동체.
- 김은주, 심미연, 이숙희, 신주연, 이주영(2017). 생태유아교육기관 운영 매뉴얼. 경기:공동체.
- 김은주, 연희정(2016). 영유아 건강교육의 생태적 접근. 경기 : 양서원.
- 김희동(2007). 때와 장소를 안다는 것 - 절기를 중심으로. 국제유아교육심포지움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 2007. 이화여대국제교육관 LG컨벤션센터. 137-152.
- 다키이 히로오미(2003).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김성기 역). 황금가지.
- 이부영(2012). 노자와 융. 한길사.
- 이태경(2019). 산마루어린이집의 시설(공강)과 교재교구(놀 거리) 운영 사례.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 임재택(2008). 생태유아교육개론. 파주: 양서원.
- 임재택(2008). [제3판] 생태유아교육개론. 경기: 공동체.
- 임재택(2019). 누리과정 개편안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생태유아교육과정의 운영,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45
- 임재택, 김은주, 하정연, 권미량, 조채영(2008). 생태유아교육프로그램. 경기: 공동체.
- 임재택, 하정연, 신주연(2012). 숲유지원 운영 매뉴얼. 일산: 공동체.
- 임재택, 하정연, 이숙희, 배은진, 백현윤, 이연주(2011).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연건강교육. 경기: 공동체.
- 조순영(1998).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생활사(生活事)에 대한 질적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순영(2013). 몸 마음 영혼이 행복한 아이. 생태유아교육학회 발표자료집.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 조순영(2014). 노자 도덕경을 통한 생태유아교육 교육관의 해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3(2).
- 최봉영(2008).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격의 개념과 실재, 묻고 답하기. 한국인격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최삼규(2016). 다시 쓰는 동물의 왕국. 이상.
- 하정연, 김은주, 김은영(2010). (월별로 살펴보는) 유아교사 텃밭 매뉴얼. 경기: 양서원.



하정연, 임재택, 이숙희, 이미래, 남연주(2008). (생태유아교사들의 실천기록) 유아 식생활 교육. 경기: 공동체.

하정연, 임재택, 신주연, 정주영(2011). 생태유아교사들의 실천기록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세시풍속. 공동체

한국보육진흥원(2019) 2019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한국보육진흥원

부록 |
2019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부록 1 2019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2호

「영유아보육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5호, 2015.3.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전부개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를 “3~5세 누리과정 고시”로 한다.

“3~5세 누리과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제 1장 총론

I.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II. 누리과정의 운영

제 1 장 총론

I.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건강한 사람
- 나. 자주적인 사람
- 다. 창의적인 사람
-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3.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II.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 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2.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 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 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 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 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I. 신체운동·건강

II. 의사소통

III. 사회관계

IV. 예술경험

V. 자연탐구

제 2 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I. 신체운동·건강

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 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2. 내용

내용 범주	내용
신체활동 즐기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II. 의사소통

1.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듣기와 말하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Ⅲ. 사회관계

1.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 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 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IV.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 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 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노래를 즐겨 부른다.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V. 자연탐구

1. 목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 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 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 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다.

기획·총괄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경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획총괄사업팀장

박수빈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집필진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조순영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소장

임지연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송주은 동의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최은경 창3동어린이집 원장

심미연 부산대학교부설어린이집 원장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의 이해 (교사교육용 자료집)



발행일 2019년 9월 발행

2021년 1월 1차 개정 발행

발행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2-772-9814~8

* 본 책자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자연·놀이·아이 중심

생태친화-보육의 이해

교사교육용 자료집

